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1호

영성을 그 무엇보다 으뜸으로 여기라



이 세상에서 신과 하나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되어 하루에 여섯 끼 이상 밥을 먹어서 똥똥해지려고요? 그럼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지방흡입술을 받으러 가든가, 다이어트를 하든가, 운동을 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려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쳐도 그렇다고 뭐가 생기나요? 아무리 그래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운동하듯이 한다면요.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 시합에 나가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김에 하는 일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오랫동안 명상해도 체험이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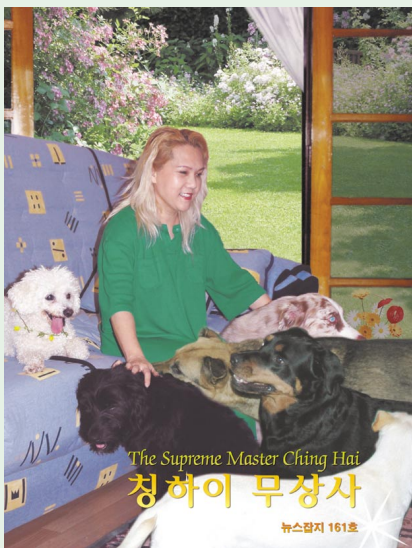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주 멀거든요. 가도 가도 항상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끝이 없고 '지붕'이 없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며 이르는 모든 단계와 의식 수준마다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언제나 꾸준하게 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몇 백년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자고 TV 보고, 그뿐이지요. 일도 그리 많지 않아서 때로 이곳은 정말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내게 고마워할 때 나는 마땅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 지겨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한 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버릴지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성장을 물질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선택에 따른 결과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돈과 명예는 우리의 영적 갈망을 뒤흔들기 위해 마या가 사용하는 아주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CONTENTS

차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1호

출판일자 : 2006. 4. 15.

설립년도 : 1990. 4. 14.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영성을 그 무엇보다 으뜸으로 여기라

2 다채로운 이벤트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미국/ 페루/ 일본/ 대한민국/ 포모사

14 사제시간의 편지

칭하이데이를 축하합니다/ 비자야 다사미와 디파왈리를 경축하며

16 스승님의 농담

시간 개념 없는 돼지들/ 중요한 존재/ 남의 건강으로 얻은 이득

17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인생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라

22 과학과 영성

과학자들, 제3의 눈을 '재발견' 하다

23 지혜어록

'기쁨 지점'을 찾아 행복의 근원과 연결돼라

24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열려 있는 지혜의 눈은 시공을 초월해 본다/ 스승의 인도가 있으면 누구나 제3의 눈을 열 수 있다/ 자신의 전능한 힘을 활성화시켜 지상 천국의 지복을 즐기자/ 지혜의 중심에 들어가면 축복과 만족을 느낀다/ 명상을 해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의식의 무궁무진함을 발견하라/ 삶을 명상으로 만들라/ 명상하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정치와 수행/ 명상은 위대한 정화제이다/ 내면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 실수를 피하라/ 묵상하는 동안에 자유의지가 가장 잘 활용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면 신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생활은 고통을 최소화한다/ 병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잘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33 채식 시대

채식 과학자와 노벨상 수상자

34/ 65 매체 보도

더욱 발전하는 황금시대를 위해/
자연 재해가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다

36 황금시대의 과학기술

황금시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발명하다

39 이야기 세상

평온한 밤/ 초창기 사제시간의 이야기

42 사랑의 실천

파키스탄/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미국/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미국과 불가리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불가리아/ 어울락/ 인도네시아/ 포모사/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 일람표

47 감사 편지

아자드 카슈미르

66 황금시대의 새로운 비전

위대한 성령과 그의 무지개 전사들

68 전세계 연락처

71 관음 웹사이트

72 시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문

뒤표지 안 영혼의 고양

새로 나온 책/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MP3

뒤표지 무상예술

진선미로 빛나는 제11대 천상의 보석



핀란드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이 영성 박람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다

헬싱키 뉴스그룹 (원문 핀란드어)

[헬싱키] 2005년 10월 15일과 16일, 헬싱키 동수들은 해마다 열리는 ‘영성과 지식 박람회’에 참가했다. 벌써 7년째 이 행사에 참가해 오고 있는 동수들은 박람회가 열리는 학교 건물의 전시실을 한 칸 예약해 지역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했다. 우리 전시실의 평온한 분위기에 끌린 많은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DVD 강연을 열심히 시청하고 사진과 책, DVD, 예술 작품 등을 진지하게 살펴 보았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핀란드 전국에서 온 동수들은 지혜로 가득 찬 스승님의 말씀을 핀란드어로 번역하고, 스승님의 강연 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감로법어가 적힌 작은 엽서 등을 대량 인쇄해 배포했다. 홍보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스승님과 수행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박람회 전날, 우리는 전시실에 스승님의 사진과 그림을 걸며 정성스레 장식을 마쳤다.

행사를 하는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의 1999년 남아프리카 순회 강연을 대형 화면으로 상영했다. 청중들은 수행의 길, 관음법문,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스승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었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폭 빠진 나머지 남아공 청중들과 함께 스승님의 따뜻한 유머에 웃음을 터트리곤 했다.

이 밖에 동수들은 박람회 이틀 동안 방편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한 해탈이라는 스승님의 소중한 선물을 받아갔다. 동수들이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방편법을 위한 조건과 명상법에 만족한 듯 마음속에 오로지 기쁨만 있을 뿐 아무 질문도 없다고 대답했다. 방편법을 전수하는 동안 동수들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스승님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핀란드 동수들은 2005년 ‘영성과 지식 박람회’를 통해 최고의 진리를 열망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안내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렸다. ♥

아일랜드 소식

관음 가족이 전인적 건강 축제를 빛내다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코크] 200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더블린과 코크(Cork) 동수들은 아일랜드 제2의 도시인 코크 시청에서 열린 ‘심신과 영혼 축제’에 참가

했다.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대중

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하며 큰 기쁨을 느꼈다.

동수들은 ‘행복한 삶의 열쇠-관음법문’을 주제로 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연두색과 금색 휘장으로 단순하고도 고상하게 부스를 장식하고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부스 한가운데에 걸어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눈을 한 번이라도 봄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많은 이들이 오른쪽에 걸린 연화좌로 명상하시는 스승님의 법상에서 아름답고 평온한 느낌을 받고는 행복해했다.

그 가운데 방문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연속해서 상영된 스승님의 DVD 강연이었다. 행사장이 시끄러웠는데도 방문객들은 강연 자막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마치 스승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일부 손님들은 행사 기간 내내 우리 부스를 몇 번이고 찾아와 스승님의 강연을 보고 전단지와 스승님의 책, 비디오, DVD, CD 등을 더 많이 얻어 가곤 했다.

축제 기간에 우리는 행사장 회의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하루에 한 차례씩 세 편을 상영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스승님의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빠져들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에 관심을 보였다. 그 가운데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강연을 봤던 한 사람은 몇 년 전에도 관음법문 부스를 보았지만 당시에는 명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주중에 방편법을 배우기로 동수들과 약속했다. 그날 저녁 동수들은 그 지역의 한 채식 식당에 갔다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탐독하고 있던 그와 우연히 마주쳤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한 번은 관음 부스 맞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시력을 가진 제법 유명한 영매에게 미래를 점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스에서 상영하는 스승님

의 강연을 보기 시작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스에 와서 스승님과 명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들은 일부 영매들이 30분 상담하는데 50-100유로(미화 60-120달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세해탈을 보장하는 이 법문이 무료로 전수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이런 즐겁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동수들은 큰 축복을 느꼈으며 자비로운 스승님의 가르침을 동포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크게 감사했다. 이번 2005년 심신과 영혼의 축제를 돌아보면 스승님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켰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영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수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큰 힘을 얻고 계속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하는 한편 스승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 속에 많은 새로운 사형사자들이 언제나 행복한 관음 대가족에 합류하길 기대했다. ♥

영국 북아일랜드 소식

관음 가족, ‘심신과 영혼 축제’를 밝히다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벨파스트] 2005년 10월 15일과 16일, 더블린 센터 동수들은 북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열린 ‘심신과 영혼 축제’에 참가했다. 벨파스트(Belfast)시 W5 오디세이(W5 Odyssey)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균

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즐기자’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북아일



랜드에 관한 수많은 불행한 소식들을 접했지만 1999년 6월 스승님이 더블린에서 강연을 하신 다음부터는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고양되었고 그곳의 상황도 많이 호전되었다. 더블린 동수들은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계

락처와 함께 스승님의 전단지와 견본 책자를 제공했다. 행사 이틀 동안 관음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질문해 왔다. 거의 모든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아주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들 가운데 스승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스승님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벨파스트 심신과 영혼 축제’ 흥법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 완벽한 결과에 고무된 동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흥법 활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행복한 관음 가족이 어서 빨리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신 자비로운 스승님이 중요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았다.

우리 부스는 눈에 잘 띄는 주 출입구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입장하는 방문객들은 바로 스승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뵈고 TV에서 연속 상영되는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부스를 감청색 천으로 우아하게 꾸미고 중앙에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걸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시장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 DVD 두 편을 상영했는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손님들이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 강연을 시청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에 관심을 보여서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센터 연

세르비아 소식

세르비아에 닿은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

탄자 오베르메이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베오그라드] 2005년 9월 21일, 신의 완벽한 안배 속에 슬로베니아 동수들은 한 노르웨이 사형의 도움을 받아 세르비아(전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의 수도인 베오그라드 시내의 파크 호텔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방편법을 전수했다.

동수들은 행사 나흘 전부터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기쁘게 받아들였다. 강연회 당일,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과 아름다운 꽃꽂이로 행사장을 장식하고 스승님의 경서와 뉴스 잡지,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을 전시하는 한편 가벼운 간

식거리와 음료수도 준비해 두었다. 이 날 오후 수십 명의 손님들이 강연장을 찾아와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강연회가 끝난 뒤에는 십여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다른 약속 때문에 방편법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날을 잡아



방편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방편법 명상 시간 동안 모두들 천국의 평화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다. 참석자들은 떠나기 전 동수들에게 신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진심 어린 감

사를 표하면서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세르비아의 다른 도시에서 강연회를 개최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널리 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05년 10월 29일, 슬로베니아 동수들은 베오그라드의 한 아파트를 빌려 지난 9월 21일에 방편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비디오 강연회와 방편법 전수 시간을 가졌다. 동수들은 이번 강연회에 못

보던 사람들까지 참석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흐뭇해했다. 이 밖에 동수들은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11월 중순 현재까지 여러 명이 완전 입문을 신청한 상태이다.

베오그라드 비디오 강연회 이후, 슬로베니아 동수들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처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뻐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홍법 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를 기대했다. ♥

남아프리카 소식

스승님이 주신 영성의 향연을 즐기다

케이프타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동수들은 전세계 동수들이 그랬듯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스승님의 2005년 헝가리 선 행사 강연 비디오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천상의 음식을 한껏 즐길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천상의 음식들을 선보이는 방식과 내용이 독특한 이 성스러운 연회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이 향연은 우리에게 영성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었고 우리가 스승님의 제자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보물 창고 같은 비디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벅차고 즐거웠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짓거나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특히 스승님이 공중으로 축복 사탕을 던지시거나 당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헝가리 굴라쉬*로 군침 돌게 하실 때는 더욱더 웃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많은 동수들이 헝가리 선 행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 수행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고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빼기는 일이 적어졌다고 믿는다. 전보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명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에

는 오랜 명상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동수들도 이제는 한 번에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명상을 해도 지치지 않는 것 같다.

동수들 외에 또 다른 아름다운 존재 역시 큰 이로움을 얻었는데, 바





로 단체명상 장소의 주인이 키우는 네 살배기 독일 셰퍼드 위베르트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볼 수 없었지만 헝가리 비디오 시리즈 덕분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채식을 싫어해서 일반 음식만을 먹었는데 강연 시리즈가 끝나갈 무렵에는 마치 그 음식에 흥미를 잃은 듯 육식량이 계속 줄더니 결국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그 개의 '부모'는 이 변화에 크게 기뻐하고 감동했다. 17개월 때부터 위베르트를 키우면서 그의 식습관을 바꿔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그 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위베르트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가 위베르트의 착한 행동에 대한 상으로 동물성 과자를 주었지만 그는 냄새만 좀 맡아보더니 그냥 돌아서 가버렸다! 또한 그의 주

인은 비디오 시리즈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위베르트의 행동거지가 훨씬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본 케이프타운 동수들은 더욱 부지런히 수행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언젠가는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 언제나 영성의 안테나를 바르게 맞추도록 할 것이다. ♥

주: 맛있는 헝가리 굴라쉬 요리법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godsdirectcontact.us/com/vegetarian/Hungarian%20Vegan%20Goulash%20Stew.htm> (영어, 중국어)

미국 플로리다 소식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땅에 신의 말씀을 전하다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가 2004년 네 번의 대규모 허리케인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 인접한 주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피해를 입게 되자 플로리다 동수들은 지속적인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2005년 4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비디오 홍법 강연회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와 세미놀카운티(Seminole County)에서 개최했는데, 9월 3일과 9월 18일에는 각각 웨스트팜비치(West Palm Beach)와 케이프코랄(Cape Coral)에서 추가적인 홍법 강연회를 열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연을 대형 화면으로 상영했으며, 청중들은 스승님의 유머에 종종 웃음을 터트리곤 했다. 또한 강연회에 참석

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케이프코랄 홍법 활동은 아름다운 일요일 오후, 칼루사하치(Caloosa hatchee) 강이 보이는 '요트 클럽'에



케이프코랄 비디오 강연회

서 개최되었다. 그 클럽은 주차 공간이 부족했는데도 많은 구도자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스승님 강연이 상영되는 동안 청중들은 스승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고 색다르게 들렸겠지만 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렸던 강연회에서도 거의 모든 손님들이 남아서 동수들이 제공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즐기고 방편법을 배웠다. 몇 사람은 이 ‘이국적인’ 음식을 집에 싸 가기도 했다! 한 여성은 “여러분이 만든 채식 요리가 얼마나 맛있던지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동수들은 ‘태양 반도’가 미국을 휩쓴 허리케인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웨스트팜비치 비디오 강연회

에 신게 감사드렸다. 그들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를 통해 재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열려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구도자들이 깨달음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오렌지카운티 비디오 강연회

미국 뉴욕 소식

황금시대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전파하다

뉴욕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뉴욕] 미국 최대 규모의 육체·정신·영혼의 박람회인 ‘2005 새 생활 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뉴욕에 있는 뉴요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소개하는 데 있었다. 뉴욕 센터 동수들은 이 영광스러운 기회에 동참해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가 스승님의 강연집과 요리책, 기타 출판물을 전시하고 만세등으로 장식하자 우리 부스에서는 고귀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동수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음법문에 대한 많은 방문객들의 질문에 사려 깊게 대답하면서 10월 30일 뉴욕 센터에서 열릴 홍법 비디오 강연회에 그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운 좋게도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뉴욕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스승님



을 한 번 더 뵈고 싶다고 말했다.

2주일 후 뉴욕 센터는 ‘전쟁을 멈추는 길’이라는 주제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재해를 고려해, 사람



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구의 정화를 앞당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주제를 채택했다. 지난 번 행사에서 동수들을 통해 관음법문에 대해 알게 되고 이 강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새 생활 양식 박람회'의 한 직원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강연회가 시작되기 세 시간 전부터 도착해 진리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비디오 강연 후에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겼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방법법을 배웠다.

동수들은 새 생활 양식 박람회와 비디오 강연회 흥법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 계신 스승을 따라 최고의 법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운이 좋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시대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승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해 나가기로 했다. ♥



페루 소식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임없이 페루를 축복하다

에드가 나달/ 리마 (원문 스페인어)

[리마] 2005년 10월 21일, 리마 동수들은 기쁘고 열성적인 마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진리를 함께 나누며 칭하이데이 12주년을 경축했다. 이 행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우호적인 성원을 보내는 페루 국립도서관에서 열렸다.

행사 당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당초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보통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일부 손님들이 두 시간 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5시도 안 됐는데 강연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그날 저녁 이 영성의 향연에서는 먼저 스승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가 상영되었고 이어서 '자신의 신성을 자각하라'는 비디오 강연이 상영되었다. 비디오 강연 동안 청중들은 스승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집중했다. 그리고 나서 온 좋은 100여 명의 손님들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새로운 방법법 수행자 가운데 한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창 밖에 있던 스승님 사진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스터에 쓰인 '내면의 평화와 즉각 깨

달음을 발견하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즉시 버스에서 내려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는 또 깨달은 참스승을 찾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방법법 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은 참석자들에게 사랑으로 준비된 갖가지 맛있는 채식 음식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채식이 건강에 아주 유익하며 자신들이 평소 먹는 음식과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페루 동수들은 이번 심신의 향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05년 칭하이데이를 대중들과 함께 경축할 수 있었다. ♥

스승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홀리오 카르데나스/ 아레키파 (원문 스페인어)

[아레키파] 2005년 10월 28일, 페루 동수들은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아레키파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이번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강연회 전, 동수들은 시내 주요 지역에서 많은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포스터를 붙였다. 한 지방 라디오 방송국과 케이블 TV 39채널 UHF에서 나온 두 명의 기자들이 동수들을 인터뷰하고 이번 행사 소식을 널리 알렸다.

강연회 당일, 동수들은 강연장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해 먼저 스승님의 농담이 담긴 DVD를 상영했다. 이후 좌석이 거의 다 차자 동수들은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에 있는 스승님의 약력을 인용해 스승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신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읽어보도록 인도했다.

이어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깨달음을 통해서만 신의 왕국을 구할 수 있다’를 상영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왜 살아 있는 스승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와 칭하이 스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수행을 했는가?”, “환생을 믿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인가?”, “모든 고통은 정말 욕망에서 비롯되는가?”, “이

수행법이 자신의 가톨릭 신앙에 해가 되지는 않는가?” 등등 많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답변을 들은 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나타냈다.

나중에 방편법을 전수했는데, 대부분이 좋은 체험을 했다. 방편법을 전수 받은 후 아무 질문이 없었던 것에 동수들은 마음이 흐뭇했다.

아레키파 강연회를 마친 후 페루 동수들은 스승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스승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게 됐을 때 만사가 순조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일본 소식

이론과 실제가 결합된 강연회와 채식 향연

일본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2005년 10월 2일, 도쿄 동수들은 센터에서 흥법 비디오 강연회를 연 뒤에 채식의 이로움을 알리는 채식 연회를 베풀었다. 초가을이라 쌀쌀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행사 당일은 놀랍도록 푸근하고 화창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2005



년 9월 초에 열렸던 ‘도쿄 채식 주간 축제’ 때 우리 부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까지 데려와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스승님의 강연을 주의 깊게 시청하면서 간간히 스승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뒤, 한 사제가 미국의 유명 영양학자인 존 A. 맥도걸(John A. McDagall) 박사의 연구를 소재로 삼아 채식의 이로움을 설명했다. 그녀는 채식 음식 또한 맛있고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맥도걸 박사의 요리법에 따른 풍성한 채식 음식도 선보였다.

도쿄 동수들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채식 음식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행사에서는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단순히 종류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각 코스별 요리의 양도 풍성해 손님들이 모두 배불리 먹기에 충분했다. 이곳저곳에서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논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 사제의 주도면밀한 강연과 군침 도는 음식들 덕분에 참석자들은 채식 음식도 맛있으며 육체와 영혼 모두 양쪽에 이롭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중에 열성적으로 채식 식품을 사러 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번 시식회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10월 비디오 강연회와 채식 연회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즐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대한민국 소식

관음법문은 최고의 무술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중주] 관음법문과 무술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2005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충주에서 열리는 제8회 충주 세계 무술 축제를 방문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대전 동수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무술 축제에 참가해 ‘채식과 명상’ 부스를 열고 채식과 명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무료로 채식과 대체의학 치료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에는 약 10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몇몇 방문객들은 지난번에

받아간 견본책자를 읽어 봤다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이 아름답다고 하며 감탄했다. 올해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으며 수행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밖에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제공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아주 좋아해서 우리 부스 앞에는 언제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동수들은 또한 부항과 마사지, 침술 같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이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기다리고 치료하는 동안 스승님의 DVD를 시청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심신으로 큰 이로움을 얻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몇 명의 방편법 수행자가 새로 늘어났고 몇명은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스승님은 “관음법문도 일종의 무술입니다. 이 무술이 있으면 우리 내면과 외면의 그 어떤 부정적인 힘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행사 기간 내내 우리 부스에는 이완되고 기쁜 기운이 가득 넘쳐흘렀고 방문객들 또한 매우 개방적이고 열정적이었다. 그들 모두 신



의 무한한 사랑에 정복된 게 분명했다. ♥

탈춤 페스티벌에서 진리를 알리다

대구,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안동] 전통의 숨결이 살아 있는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안동 국제 탈춤 2005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안동 센터는 다른 지역 동수들과 함께 이 축제에 참가해 채식 부스와 명상 부스 두 개를 운영하며 진정한 참살이는 수행과 채식, 고귀한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낙동 강변을 따라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푸른 하늘 높이 떠 있는 애드벌룬과 즐겁고 밝은 표정의 방문객들로 인해 조용한 안동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한국과 터키, 포모사, 러시아, 스리랑카 등지의 전통 춤 공연과 전시물을 감상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탈 만들기, 전통 춤 배우기와 같은 배움의 기회도 다채롭게 제공되었다.

행사장 입구에 붙여진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과 스승님의 시 ‘수행을 권하며(勸修)’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10월 3일 우리 부스를 찾은 한 방문객은 스승님의 화신을 보고 스승님이 친히 행사에 오셨다고 생각해서 이틀 뒤 스승님을 뵙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가 자신이 화신 스승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첫날 스승님 강연 DVD 두 편을 보고 입문 신청을 했으며, 이튿날 친지와 함께 다시 찾아와 스승님 강연을 몇 시간 동안이나 주의 깊게 시청했다.

채식 부스에서는 채식 김밥과 채식 햄버거를 판매했는데, 주문이 너



무 많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 밖에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진은 지난 5년 동안 지역 생



할 정보지 생활 타임지에 실린 까닭에 많은 안동 시민들이 스승님의 명호와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다.

안동 국제 탈춤 2005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국 동수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채식 생활을 널리 홍보하고 명상법을 알렸다.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활동에 참가한 동수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기회를 안배해 주신 스승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렸다. ♥



포모사 소식

그림과 시로써 칭하이데이를 경축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시우] 2005년 10월 23일 일요일 칭하이데이 12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포모사 곳곳에서 온 3천여 명의 동수들과 손님들은 시후 센터에 모여 이 뜻깊은 날을 즐겁게 보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무지개 동산과 용선 호수, 감로강, 붉은 정자를 스치고 지나가며 황홀한 풍경화를 그려냈고, 동수들은 그림과 시 낭송을 통해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날 오전 400여 명의 열성적인 아마추어 화가들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목탄과 크레용, 수채 물감으로 시후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에



담았다. 동수들의 작품들은 그저 그런 풍경화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이들의 영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천국의 빛까지도 눈부신 색조로 나타나 있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1993년 10월 25일 칭하이데이가 선포된 유래에 관한 짧은 영상물을 보았다. 이어서 동수들은 자신의 내적 깨달음과 스승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시 낭송을 통해 전했다. '그건 당



신입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칭하이 송시' 등 창화 센터 동수들의 시는 수행 여정과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었다. 이 시들은 세속의 분투에서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까지의 기쁨을 대비시키고, 신의 은총을 통한 영혼의 고양을 축하하며 스승님의 영광을 찬탄했다. 타이베이 사형의 '나는 잔잔한 사랑의 바다를 행복하게 항해하네'는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잠겨 체험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노래한 시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스승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달콤하고 맛있어진 채식 케이크를 먹으면서 칭하이데이의 영광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기쁜 환호성 속에 이 날 경축 행사는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

이 순간을 영원히 -칭하이데이 특집

관음법문 웹사이트 '칭하이데이 특집'에서는 칭하이데이의 유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전세계 동수들이 스승님께 보낸 멋진 축하 카드와 여러 센터의 칭하이데이 경축 행사 모습을 담은 흥미로운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영적인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제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껴 보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ghaiday/eng> (미국-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chinghaiday
 (포모사-영어)





칭하이데이를 축하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 (원문 스페인어)

2005년 10월 25일

사랑하는 스승님께

오늘 아르헨티나의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칭하이데이를 경축하기 위한 특별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길(道)을 걷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저희는 지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는 더없이 심오한 진리와 진정한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스승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함이 없는 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승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도 스승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면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지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 우리의 행복을 키워나가고 우리 삶을 더 밝고 빛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고 진실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수많은 생 동안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 영혼을 해탈시키고자 사랑을 베푸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스승님께 그 어떤 말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르헨티나 아이들 드림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비자야 다사미와 디파왈리를 경축하며

딜립 고탐 사형/ 네팔 카트만두 (원문 네팔어)

황금시대 2년 10월 11일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네팔 다사인* 축제의 열흘째인 비자야 다사미(Bijaya Dashami-진리가 악을 물리친 날)를 맞아 스승님께서 늘 즐겁고 평화롭고 번영하시며 신의 품안에 잠기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날에 스승님께서 저희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저는 당신께 기도드릴 어떤 노래도, 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께 낭송해 드릴 어떤 기도문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어찌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경전도 모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양한 종교 의식도 알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울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모님,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함을, 오직 당신만을 따라야 함을 압니다.

당신은 모든 슬픔을 잠재우는 영약이십니다.

진리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있는 것은 기쁨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슬픔의 가시들과 불쾌함, 낙담은 종종 천국으로 가려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불굴의 용기와 열정, 겸손, 끈기로 가득 채우시어 이 모든 장애를 넘을 수 있게 하소서. 스승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행복이나 슬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힌두교의 빛 축제인 디파왈리*는 다사인 축제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가정은 이 날을 맞아 문과 창문에 각양각색의 초와 디요(작은 기름 램프)를 밝힙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내면의 스승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승리를!

스승님께 승리를!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승리를!

스승님께서 행복한 비자야 다사미와 디파왈리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즐거운 순간에 스승님을 그리며

네팔 카트만두에서 딜립 고탐 드림

주 1: 다사인(Dashain)은 네팔 최대의 연례 축제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초승달이 뜨는 날부터 보름달이 뜰 때까지 15일 동안 열린다. 악을 물리친 진리와 미덕의 승리를 경축하는 이 축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알리며 해탈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모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주 2: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인 디파왈리(Deepawali)는 다사인 후 5일 동안,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기뻐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다지기 위해 열린다. 디파왈리 사흘째 되는 날에는 집집마다 문과 창문에 아름다운 양초와 갖가지 등불을 밝히며 불꽃놀이로 밤하늘을 수놓는다. 불꽃놀이의 찬란한 빛은 우리에게 이 덧없는 세상은 우리가 갈망하는 진짜 '고향'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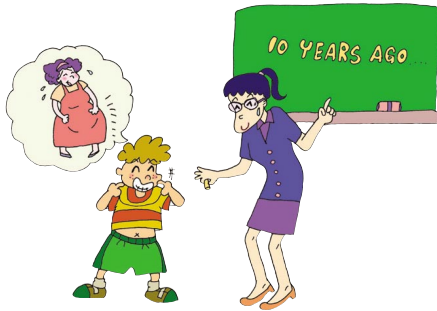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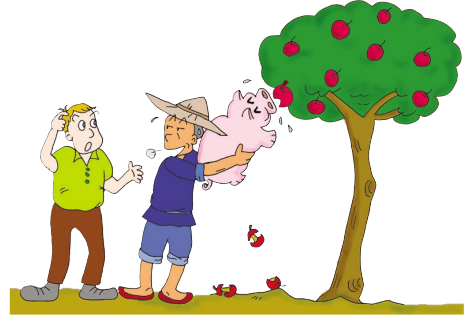
스승님의 농담

시간 개념 없는 돼지들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농부가 자기 돼지를 들어올려 나무에 달린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차라리 그 사과들을 따서 돼지 주둥이 근처에 던져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시간이 더 절약될 텐데요.”

“바보 같은 소리.” 농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돼지에게 시간 개념이 있는 줄 아시오!” ♥



중요한 존재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선 생님이 윌리에게 물었어요. “1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해 보겠니?” 그러자 윌리가 대답했어요. “저요!” ♥

남의 건강으로 얻은 이득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낫선 사람이 의사의 사무실에 뛰어들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치료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이득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들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환자가 아닌데요. 전 당신을 치료한 적이 없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그 낫선 사람이 대답했지요. “예, 맞아요. 하지만 저의 빌 숙부님이 당신 환자였는데, 제가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답니다!”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1/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1/jk1.htm> (포모사)



늘 인생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라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어떤 동수가 매일 15시간씩 일하느라 피곤해서 명상 때마다 졸았다. 피로 때문에 수행이 진보하지 못할까 걱정된 그는 스승님께 해결 방법을 청했다.

복잡한 삶은 피곤하다

참으로 안됐군요! 우리가 컴퓨터를 발명해서 그 사용법을 배우는 건 우리 삶을 보다 편하고 이완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원래는 삶을 보다 간편하고 홀가분하게 만들려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뭔가를 발명해낼수록 삶이 더욱 복잡해지고 시간도 점점 모자라는군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너무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15시간씩 일을 하다니, 어떻게 견디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진작에 컴퓨터 앞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업은 파분한 데다 별 감동도 없으며 또 하루에 15시간이나 일을 해야 하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두뇌와 몸이 극도로 피곤해 일곱 시간을 잔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명상을 하면

당연히 자게 되지요.

정말 안됐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을 탓하는 것입니다. 일을 바꾸거나, 일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보수를 반만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명상을 하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은 좀 복잡합니다. 쉽지 않지요. 다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고되기 때문입니다. 입문을 한 다음 일어나서 명상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다시 잠에 빠져버립니다. 원래는 누워서 자던 걸 자세만 바꿔 일어나서 자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정말 안됐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당신처럼 일해야 했다면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어떤 등급의 보살이었다 해도 성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영웅을 만들고 보살도 만드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는 그가 인도에서 태어났더라도 그 시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수행에 도움이 될 상황을 창조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자 한다면 홀가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적절한 직업을 택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이 세상에 쫓겨서 고통될 수 없으면 직업을 바꾸거나 일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다 죽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불성을 찾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어 수행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수행에 이롭지 않다거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이상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찾고 수행할 시간이 생기도록 자신의 삶을 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번 돈을 누가 다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날마다 옷을 세 벌 이상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 벌밖에 못 입지요. 옷이 아무리 예뻐도 한꺼번에 세 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다지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날마다 15시간씩 일하다니 미친 짓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문명화될수록 지혜가 적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니까요. 이를테면 오늘날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가 있으니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잡담을 해야 하고, TV가 있으니 또 TV를 봐야 합니다. 못 보면 아쉬워 어쩔 줄 몰라합니다. 또 차가 있으니 운전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갈 곳이 없어도 지겨우니까 그냥 이리저리 아무데나 달립니다. 시간이 좀 나면 세차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해탈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우리는 뭐 하러 여기 왔는가?' 하고 궁금해할 시간도 없으며 '이봐! 나는 이 컴퓨터 노예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15시간씩 투자해 일을 하지만 결국엔 무엇 때문이죠? 그래 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이 세상은 컴퓨터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컴퓨터가 쓸모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용하게 해서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차가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오히려 차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차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고, 운전하는 것도 아까워하며 하루 종일 차 생각만 하며 차의 노예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병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 사 입지도 못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돕지도 못하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려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아하지요. 그들은 돈이라는 게 우리가 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에 이용당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쓰든,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알고 물질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마음을 넓혀 우주를 감싸라

수행을 할 때는 한 개인이나 가족, 또는 5대 조상의 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 수행한다는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5대 조상을 위해 수행한다는 건 명리나 장수, 신통을 위해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크고 의지가 강할수록 힘이 커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도한다면 힘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소용은 있습니다. 완전히 쓸모 없다는 말이 아니라 큰 힘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아파도 상관하지 않으며 복권에 당첨되어도, 또는 돈 한 푼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스승이 우리를 돌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무슨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스승님, 당신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니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높은 등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할 때 빛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으며, 관음할 때 소리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만족스러운 때이며 평상심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득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를 따라 수행을 한 뒤에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스승님, 제 남편은 어떻게...”, “스승님, 제 아들은 어떻게...”. 아니면, “저는 어찌고저찌고...”. 나는 이런 질문들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이래야만 도심(道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제서야 우리 등급이 더욱 높아지고 자유자재해지고 힘이 커질 것이며 보다 빨리 성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업장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힘이건 나쁜 힘이건, 큰 힘이건 작은 힘이건, 부처의 힘이건 마야의 힘이건 그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지

가 가장 높고 아무 업장도 없으며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만일 우리가 전능한 지혜나 신보다 이 세상의 업을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내릴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크게 가질수록 지혜와 힘은 더욱 커지게 되며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 이롭습니다. 나는 엄격하게 여러분에게 배우자나 자식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우주의 일부분에 포함시키십시오. 기도할 때는 이 세상의 고통이 없어지게 해 달라고 스승의 힘이나 신의 힘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친척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신은 만물을 키워내는 진정한 은인이다

왜 우리는 해탈할 수 없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국방 기밀’을 말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짜를 진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배를 빌려 이곳에 내려오고선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의무를 느낍니다. 아주 무거운 의무를 느끼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머니들을 낳은 존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낳은 존재는 신이며, 우리를 낳은 존재도 신입니다. 신이 그녀를 돌보고 성장하게 한 것이며, 이제는 우리도 돌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은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1, 2달러를 주면, 우리는 그에게 아주 고마워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누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어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누가 우리에게 주사를 놓아주어도, “아! 고마워요!”라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를 돌봐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의사도 돌보며 의사에게 힘을 주어 우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신입니다. 우리를 키워낸 분도 신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도 신입니다. 내가 말하는 신은 최고의 힘이자 우리의 본래 지혜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짜 은인 때문에 진짜 은인을 잊습니다. 그래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받는 편지들은 어머니나 연인이 써서 보낸 것이지 우체부가 쓴 것이 아닙니다. 우체부는 그저 편지를 전해줬을 뿐 그 안에 뭐라고 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지를 배달해 준 우체부에게 “우체부 아저씨,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면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우체부일 뿐입니다. 이 선물들은 원래 여러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체부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체부를 숭배하면 그의 예고는 점점 더 커져서 자신이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신성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성이 있고 나에게도 신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열어서 보여 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내가 명리를 좋아하고 숭배 받기를 좋아해서 밖에 나와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대중: 예.) 그러니 어리석게 그런 외적인 예의는 차리지 마십시오.

석가모니불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며 달은 아니다. 내 손가락을 따라가 보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유일무이한 부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유일무이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

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불보다 높다.”, “노자가 공자보다 낫다.”, “석가모니불이 공자보다 낫다.”라고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업의 관계를 풀고 다른 사람들 수행의 길로 인도하라

우리는 저마다 한 사람하고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지요. 우리에게겐 수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그때마다 부모가 있으니까요. 동물일 때도 부모가 있고, 천인(天人), 아수라일 때도 부모가 있고, 나무일 때도 부모가 있습니다. 이 구아바 나무의 부모는 구아바 나무입니다. (대중 웃음) 부모가 없었던 생은 없습니다. 세세생생 우리 부모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윤회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모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선택합니다. 그 부모 역시 다른 이들과 인연이 있으니까요. 우리하고만 인연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많고 많아서 이런 인연이나 인과를 끊어 내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로 내려올 때마다 수행을 해서 좀 더 고등한 존재가 되고 성인이 되고자 맹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려오면 결국에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아들’ 또는 ‘내 손자들’에 집착해 버립니다. 그럼 끝장이지요! 이 거미줄에 잡히면 걸어 나갈 수도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온 뒤에도 자신이 한 맹세를 기억한다면 일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 우리에게 육신을 줄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인

연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택시와 같은 운송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갈 때 택시를 타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만일 택시가 없으면 기차나 비행기를 타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운송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은, “그는 내 자식이야.”라고 생각하고, 아이는 그녀를 어머니로 여기니 서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나 자식이 모두 서로를 도우며 깨달은 스승을 찾아 수행을 하려고 이 사바세계에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가족은 가장 축복 받은 것입니다. 모두들 서로 도우며 수행하니 진보가 아주 빠르며 결국엔 함께 올라가겠지요! 설령 이곳에서는 서로 인연이 많지 않았다 해도 올라간 뒤에는 함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대중: “예!”) 여기에서는 서로에게 미련을 뒤 봤자 기껏해야 100년 밖에 서로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마다 자기 길을 가야만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자식이나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도록 해서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헤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대중 박수) 그래요! 부모와 자식에게 돈을 준다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괴롭고 아프며 무지한 채로 남아 있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올라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곳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궁극의 법문을 소개해 효도하라

석가모니불은 가장 큰 효자는 부모에게 수행을 권하고 정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가장 큰 효자인 것이지 용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도를 구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고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만일 우리 부모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이 굶주리지 않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이는 우리의 운명이 아주 좋다는 말이니깐요!

육조 혜능은 외아들인데다 돈이 없어서 도를 구하려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좀 주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며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집을 떠났지요. 깨달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수행을 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사후에 도리천(道利天)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진리를 얻지 못했거나 그의 어머니가 석가모니불을 낳지 않고 범부를 낳았다면 그 어머니는 도리천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갔을지 모를 일이지요.

그녀는 왕비였기 때문에 때로 무거운 업을 짓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요. 그녀는 다른 이들의 세금과 노동으로 지어진 궁전에 살면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생들에게 빛을 진 것인데, 어떻게 죽어서 도리천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왕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은 사람들에게 진 빛 때문에 모두 그곳에 가 있습니다. 만일 왕이 도덕적이지 않고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런 멍청한 왕과 폭군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지요. 생전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죽은 뒤에 더욱더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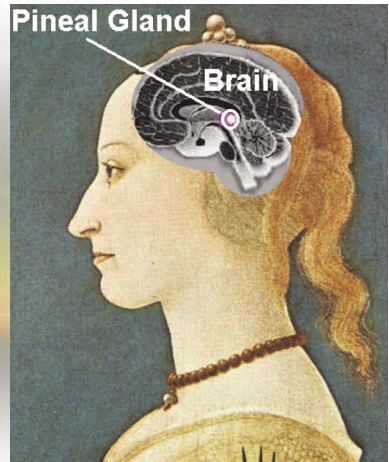
우리 수행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모를 돕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도움은 그들을 해탈시키는 것이지 그들의 텃없는 육체를 돌보며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면 수행을 통해 우리의 축복을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큰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





과학자들, 제3의 눈을 ‘재발견’ 하다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지혜안이라 알려진 제3의 눈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구도자들과 수행자들에게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현대 과학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러시아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빛이 통하지 않는 봉투 속에 든 카메라 필름을 실험 대상자의 이마에 놓자 필름이 영상화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비탈리 프라브디브슈테프(Vitaly Pravdivstev)는, “이 실험은 이른바 ‘두뇌 이미지(brain images)’를 이마 안쪽의 어떤 부분에서 발산하는 능력이 특정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참고-http://english.pravda.ru/main/18/90/364/15560_thirdeye.html)

프라브디브슈테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능력과 제3의 눈으로 알려진 두뇌 중심과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고대 동양 전통은 우리의 가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인간이 이렇게 영상을 방사하는 능력이 에너지 중심에서 나온다고 여깁니다. 밀교에서는 이 에너지 중심을 제3의 눈이라고 하지요.”

동물학계에서도 이미 어떤 동물들에겐 제3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를테면 많은 파충류와 조류에게 제3의 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눈과 관계있는 송과체는 육안과는 달리 시각능력은 없지만 빛과 열을 감지할 수는 있다. (참고-<http://www.calacademy.org/calwild//997fall/stories/counter-points.html>) 게다가 인간의 송과체는 빛을 감지하는 세

포를 가지고 있으며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물질은 신체에 흡수된 빛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뉴스잡지 133호 ‘송과체의 비밀’ 참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보통 인체의 생리 기능에서 송과체 기능의 중요성을 경시해 왔다. 인간의 송과체가 일반 동물의 제3의 눈과 비슷하긴 하지만 인간은 송과체로 빛을 직접 감지하지는 않는다. 육안에서도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는 송과체의 역할을 더욱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더군다나 인간의 제3의 눈은 동물들과 달리 두뇌 안쪽 깊숙이 묻혀 있어 그 위치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송과체는 현재 생체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서서히 퇴화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비탈리 프라브디브슈테프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현대 과학이 제3의 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뇌 이미지를 방사하는 능력은 송과체의 기능에 대한 예전 과학자들의 이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제3의 눈이 사실상 스스로 ‘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육체적 생존 기능을 넘어서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사람들의 제3의 눈이 사실 폐기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원인은 예전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추정해 왔던 원

인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아마도 송과체는 스승님께서 “신과 다시 연결되기”로 언급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일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 1920년대 신지학회 학자인 푸르커(G. de Puruker)씨는 『송과체와 인류의 진화』라는 저서에서 생물학적인 관점 대신 영적인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도 송과체는 직관적 인식의 원천이다. 우리가 어떤 직감이 들 때마다 송과체는 미세하게 진동을 하고, 영감을 받거나 순간 번뜩이는 생각으로 알아차릴 때는 보다 강하게 진동을 한다. 그렇지만 대개 송과체를 억압하고 있는 두 개의 눈(육안) 때문에 송과체가 제 역할을 하기란 아주 어렵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안은 점차 사라지고 보다 완벽한 기능을 갖추게 될 테지만, 그 중요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눈(즉, 제3의 눈)이 다시 그 고유의 지위를 되찾게 될 것이다.” (참고-<http://www.theosociety.org/pasadenayman-evol/mie-16.htm>)

어쩌면 황금시대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눈’에 대한 푸르커의 관점이 다시 한 번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프라브리브슈테프의 연구는 과학계가 지혜안의 진정한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인정한 초기 상과라고 볼 수 있다. 스승님은 지혜안을 가리켜 우리가 내면의 신과 연결되기 위해 ‘가야’ 할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신과 연결됨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실감하게 될 것이다. ♥



‘기쁨 지점’을 찾아 행복의 근원과 연결돼라

청하이 무상사/ 1997. 7. 5./ 7. 6.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87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두뇌 속에 일종의 ‘기쁨 지점’, 즉 기쁨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심지어 그 위치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상할 때 바로 이곳을 바라봅니다. 앞을 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내면을 보는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어떤 장소도 없고, 앞뒤 좌우도 없으며 그저 광활한 내면의 왕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보고 이른바 ‘기쁨 지점’에 집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혜안이라 부르지만 과학자들은 ‘기쁨 지점’, ‘기억 중심’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요.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지요. ♥



열려 있는 지혜의 눈은 시공을 초월해 본다

칭하이 무상사/ 2000. 5. 7. 일본 도쿄 (원문 영어)
DVD No. 693

질문: 칭하이 스승님, 당신의 지혜안은 미래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열렸습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우리 동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지혜안도 열려 있습니다. 원한다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지혜안도 바로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와 과거를 보는 것은 내면에 지닌 힘의 아주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미래나 과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지요.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서로 개별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일, 과거의 일, 미래의 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선택권은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유쾌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쾌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진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고를 수가 있지요. 그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1차원 속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정해진 하나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너무나도 커서 진정한 세계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목적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진정한 세계를 다시 찾으려 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

스승의 인도가 있으면 누구나 제3의 눈을 열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2000. 5. 7. 일본 도쿄 (원문 영어) DVD No. 693

질문: 원래 인류에게는 제3의 눈이 있었지만 퇴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제3의 눈을 여는 게 가능합니까?

스승님: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3의 눈을 여는 데도 장단점이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의 눈을 열고자 한다면, 이런 불쾌한 부작용들을 피할 약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봐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도우려 온 것입니다. 제3의 눈은 당신 스스로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

자신의 전능한 힘을 활성화시켜 지상 천국의 지복을 즐기자

칭하이 무상사/ 1997. 4. 26. 싱가포르 (원문 영어) DVD No. 603

질문: 명상 중에 잡념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스승님: 명상 중에 방해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즉시 그걸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계속 오불을 외우세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연습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두뇌의 가운데 부분에는 모든 지혜와 행복, 지복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의지로 이 중심과 연결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움직일 것입니다.

명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스승님, 제발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전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칭하이 스승말고 여러분 내면의 스승에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형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노력하고 자비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가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신과 같아지고 싶어하며 고귀한 품성을 갖고 싶어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원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제발 스승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그것을 진아, 스승, 부처, 혹은 신이라 불러도 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불러도 됩니다. 그저 그 힘, 우리의 진아, 모든 영혼의 근원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올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되 잠깐 동안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밤새도록 앉아 기도만 하지는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적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목적은 우리의 진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약하다면 우리의 진아에게 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진아에게 기도하고 다시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두뇌 속에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이곳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부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천국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물질적 즐거움에 대해선 개의치 않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율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명상한다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겠지요. 우리는 충전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치 작은 전류가 전깃줄을 통과하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내면으로 만족할 뿐이지요. ♥

지혜의 중심에 들어가면 축복과 만족을 느낀다

칭하이 무상사/ 2000. 5. 7. 일본 도쿄 (원문 영어) DVD No. 693

질문: 제3의 눈에 대해 말씀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제3의 눈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 사랑, 자비의 중심입니다. 일단 이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내면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다시는 불행하다거나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

명상을 해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2003. 2. 16. 핀란드 헬싱키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명상 외에 기도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스승님: 예,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신실해서 기도가 바로 신에 대한 여러분의 요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들어야만 대답을 얻는 것처럼요. ♥

명상을 통해 의식의 무궁무진함을 발견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3. 2. 16. 핀란드 헬싱키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의식을 확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며, 명상 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지요?

스승님: 명상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식이 확대되거나 확장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의식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의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 의식은 광대하고 위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 수 있고 더욱더 깨닫고 증명해낼 수 있지요. ♥

삶을 명상으로 만들라

청하이 무상사/ 2002. 10. 6. 독일 함부르크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스승님, 적어도 날마다 어느 정도 명상을 해야 이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당신은 이미 깨달았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건 당신 자신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사형, 당신은 부처가 되기 위해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군요.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조바심을 낼수록 오히려 당신의 진정한 목표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문제지요.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네 시간이나 열 시간씩 명상하면 60세가 됐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단 해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네 시간이나 열 시간의 명상 동안 받은 잠을 자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피곤함을 느껴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명상에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냥 즐기세요.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수행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지나가는 길에 있는 풍경도 즐기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즐기고 미래나 과거에 대해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현재만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자기 몫의 일이나 잘 하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명상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마땅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매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도 명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요.

당신의 삶 전체를 명상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삶 전체가 깨달음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그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일찍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완전히 깨달아서 업장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죽고 우리는 울면서 당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모두들 당신 같다면 센터는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얘기하지요? (스승님 웃음) ♥

명상하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라

청하이 무상사/ 2002. 9. 28.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명상을 계속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스승님: 예,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때 명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낮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대중 웃음) 명상을 한 시간 하면 그 중 45분간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기 전에 명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가서 다시 명상을 조금 더 하고 명상 상태에서 천천히 잠이 들면 밤새도록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많은 체험을 할 것입니다. (대중 웃음) 예, 가장 높은 곳에 가지요.



잠잘 때는 마음으로부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좀더 높은 곳에 가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서 스승은 여러분을 어디든 데려가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엉터리로 명상하는데도 빨리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상하는 것에 비하면 진보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건 잠자는 동안 스승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

무조건적인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칭하이 무상사/ 2003. 2. 16. 핀란드 헬싱키 제자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등급이 높아진 뒤에는 자연스레 모두를 사랑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돕습니다. 돕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돕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지요.

여러분은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내 지시에 따라 그들을 도우러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대가도 없지만 여러분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위해 도울 뿐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형태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러분이 명상하거나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로 인한 물질적인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의 마음에서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해, 수행의 공덕을 나누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하는 일들은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물질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

정치와 수행

칭하이 무상사/ 2002. 8. 11. 싱가포르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왜 정부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위대한 수행자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스승님: 어쩌면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모두 다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훌륭한 대통령이나 수상, 또는 장관들을 만나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마도 그것은 수행자들이 정치적 성취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경 쓰나요? 싱가포르의 수상이 되고 싶은가요?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질문자: “아니예요!”) 보세요. 당신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수행자는 뭐든지 하고자 하면 어떤 일에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싶어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건 행복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건 그냥 합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정치인들은 이미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분야에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나면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일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위를 얻으려면 ‘싸움터’에 깊숙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정치인은 아무런 슬 수도 쓰지 않지만 일부 나쁜 정치인들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온갖 술수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에 만족하고 다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며 계속 수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치 않는 것뿐입니다. ♥



명상은 위대한 정화제이다

칭하이 무상사/ 2002. 9. 28.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채식하는 동안 육식하는 사람에게서 수혈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계속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우리의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스승님: 만일 급한 수술을 받아야만 하거나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라면 수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수행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적은 피는 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신체는 계속 변하면서 오래된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혈액은 곧 신체 밖으로 배출되고 채식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고기를 먹는 누군가로부터 피를 좀 받는다면 그 사람과 그에게 먹힌 동물 모두 당신에게서 얼마간의 공덕을 얻을 테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명상은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건 단기간일 뿐이니 머지않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내면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 실수를 피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2. 10.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육신의 두뇌가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스승님: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들 실수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명상하고 외부 영향이 아닌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십시오. 누구나 배워야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

묵상하는 동안에 자유의지가 가장 잘 활용된다

칭하이 무상사/ 2002. 9. 28.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업장입니다. 그럼 자유의지는 언제 쓰는 거지요?

스승님: 명상할 때 자유의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외 다른 때에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업장을 초래하지요. ♥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면 신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청하이 무상사/ 2002. 9. 7.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53

질문:

저는 한 양로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음식은 거의 모두 고기 음식이고 저는 그것들을 그곳의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먹여주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들이 몸을 씻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늘 그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노인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신체적으

스승님:로 접촉하는 것이 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까?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으니 신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어쩌서 그게 방해가 되겠어요? 당신은 그저 그들을 먹여줄 뿐이잖아요. 당신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행복과 안위에만 집중하고 당신 자신에게는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늘 무서워하기만 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히말라야로 뛰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 괜찮겠지요.

행복해지세요! 당신이 아직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뻐하세요. 당신은 신의 축복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존경받아 마땅한 그 노인들에게 행복함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당신 부모나 조부모로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자비롭고 친절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언제♥오불을 외우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생활은 고통을 최소화한다

청하이 무상사/ 2002. 9.1. 미국 인디애나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53

질문:

질병과 육체적 고통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이나 공부

스승님: 입니까?

그것은 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치유 능력과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건강한 생



활을 하십시오. 셋째,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넷째, 날마다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명상해서 여러분의 신체, 감정, 정신, 영혼의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채식은 가장 건강한 식습관으로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칭하이 무상사/ 2002. 10. 6. 독일 함부르크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신체적 질병은 제 수행에 있어 많은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일들

스승님: 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서둘러 깨달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더 많이 명상하도록 하십시오.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은 더욱 적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더 이완되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이완되고 행복해질수록, 당신의 ♥체는 더욱더 자신을 잘 치유할 것입니다. 명상은 당신의 약입니다. 그러니 명상하십시오.

잘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2003. 2. 16. 핀란드 헬싱키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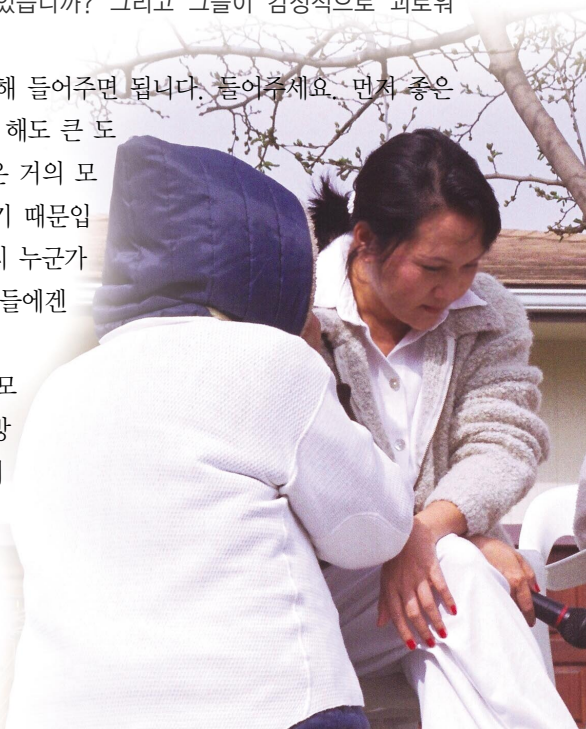
질문:

우리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괴로워

스승님: 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고통에 대해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먼저 좋은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느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들에겐 큰 위안이 되지요.

그들이 당신에게 충고를 구한다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그들을 도우십시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위해 사소한 물질적 일들을 정리해 준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심부름♥ 해준다든가 하는 거지요. 가능한



채식 과학자와 노벨상 수상자

우리 행성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예로부터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채식을 했으며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채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음은 그 숭고한 인사들의 간략한 명단이다.

노벨 수상자	저명한 과학자 및 발명가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913년 문학상	뉴턴(Sir Issac Newton) 물리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921년 물리학상	존 레이(John Ray) 영국 자연 역사의 아버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925년 문학상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건축가, 발명가, 화가
라만(Sir C.V. Raman) 1930년 물리학상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작가, 저널리스트, 과학자, 발명가, 정치가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952년 평화상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 발명가
라이너스 폴링(Linus Pauling) 1954년 화학상, 1962년 평화상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발명가, 물리학자, 공학기술자
조지 월드(George Wald) 1967년 의학상	라마누잔(Srinivasa Ramanujan) 수학자
아이작 싱어(Issac Bashevis Singer) 1978년 문학상	에드워드 위튼(Edward Witten) 물리학자, 끈 이론 학자
찬드라세카르(Chandrashekar Subrahmanyam) 1983년 물리학상	브라이언 그린(Brian Greene) 물리학자, 끈 이론 학자
엘리 위셀(Elie Wiesel) 1986년 평화상	제인 구달(Jane Goodall) 영장류학자
제14대 달라이라마(The 14th Dalai Lama) 1989년 평화상	비자이 라이 싱(Vijay Raj Singh) 의학 물리학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1991년 평화상	칼파나 차왈라(Kalpana Chawla) NASA 우주 비행사
나이폴(V.S. Naipaul) 2001년 문학상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컴퓨터 창립자 및 CEO
쿠치(JM Coetsee) 2003년 문학상	보렌스타인(Nathaniel Borenstein) MIME (이메일) 언어 창시자



더욱 발전하는 황금시대를 위해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
든 귀중한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석유 생산 최고점 이론(Peak Oil Theory)

기후 변화, 오염, 물 부족 같은 문제말고도 몇몇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가 최대 석유 생산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석유 매장량의 반이 소모되었다는 것이다. 남은 원유는 채굴하기가 훨씬 어려울 뿐더러 이용 가치도 떨어진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천연가스, 태양 에너지, 생물 에너지, 수소 및 핵 에너지 같은 현존하는 다른 에너지원들은 인류가 날마다 소모하고 있는 8천만 배럴의 원유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석유는 갈수록 얻기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선 물자와 생상품, 사람들을 운송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형태로 석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석유는 플라스틱, 제약품, 염료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일용품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식품 생산은 정지(整地), 살충제, 관개, 수확, 가공, 포장, 운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

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가 없다면 많은 현대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석유 자원 고갈로 인해 심각한 경제 문제가 1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세계 석유 매장량이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틸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지질조사단(USGS)이 발표한 『세계 석유 평가』를 보면, 현재의 회복 속도와 생산량에 근거했을 때 지구의 석유 보유량은 향후 50년에서 100년 동안은 생산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인류의 석유 수요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문제들이 현재 우리 행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세워 현재의 광범위한 국가적·지구적 경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태양열 발전기나 풍력·조력(潮力)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무오염 에너지원이나 디젤 엔진에 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과 같은 생물 연료를 발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유기농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열 해중합 처리 방식

최근 인류의 화석 연료에 따른 의존도를 줄이고 인간이 축적하는 엄청난 양의 유기 쓰레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것도 비교적 단순한 방식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 열 해중합 처리(Thermal Depolymerization Process, TDP) 방식이 그것이다. 이 기술은 복합 유기물을 기름과 가스 등 단순한 분자로 분해하는 자연의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화석을 원천으로 한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시간과 고온, 고압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TDP는 뒤뜰 차고에 탱크와 파이프, 펌, 열기구 등을 설치하기만 하면 몇 시간만에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세계를 바꾸는 기술(Changing World Technologies, CWT)’ 사(社)는 이미 미국 미주리 주에 TDP 공장을 세웠다. 그들은 물을 촉매로 사용해 하루에 210톤의 동물쓰레기를 gas와 액상비료, 고체 미네랄, 탄소, 물, 그리고 70톤(500배럴)의 석유 형태의 고품질 기름으로 변환시키고 있는데, 이 중 설비 작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15%를 제외하면 TDP 방식은 85%의 순수 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또한 TDP는 오염이 없다. 저온, 저압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고 경제 가치가 높은 부산물만을 생산한다. TDP 과정에서 식물과 동물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기름과 가스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WT는 페타이어, 플라스틱 병, 항만 침전물, 중고 컴퓨터, 도시의 하수 찌꺼기, 제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의료 폐기물, 정유 찌꺼기 등을 안전하고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도 주장한다. 그런 폐기물들을 전환할 때는 다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TDP 변환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분산화된 시스템이라서 읍이나 그보다 작은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연료와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TDP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TDP를 쓰려면 날마다 거의 천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만 현재의 석유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TDP 과정에 사용되는 원료들이 변환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지긴 하겠지만 그 물질들은 원래 석유를 사용해서 생산되거나 자란 것이므로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런 원료도 덩달아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긴 해도 인류가 화석 에너지에서 태양, 바람, 조류와 같이 보다 깨끗하고 얻기 쉬운 자원으로 눈을 돌리기까지 어려운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석유가 만든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TDP는 이 과정을 순탄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 창조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원 부족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TDP와 같은 방식들은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 남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삼림을 벌목하고, 농지를 포장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오염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생물 종(種)의 소멸과 표토 침식, 기후 변화 및 화학물질과 핵 폐기물에 의한 공기·토양·물 오염을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면 더더욱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귀중한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보다 단순한 삶을 살고 주변의 생물계에 보다 신경을 쓰며 의식주를 자급 자족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밖에 대중 운송 수단을 개선하고, 인근의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주택과 공공건물에 태양 에너지 판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고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석유 이후 시대’에 대비해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규모



로 추진되기 어렵다. 남아 있는 석유 매장량을 두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해 신문과 잡지에 투고를 하고 정부 관료와 접촉을 하며 공동체 모임을 갖는 일들은 모두 우리 사회를 좀더 발전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황금시대는 이미 밝아 왔다. 그러나 인류의 영성이 고양되어야만 황금 시대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었을 때 물질계는 정신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석유와 같은 주요 물질 자원의 고갈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인류가 자연과 사랑, 의식의 진보에 좀더 의식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

자료출처:

석유 생산 최고점 이론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623549.stm>

<http://www.museletter.com/archive/135.html>

<http://energy.cr.usgs.gov/>

열 해중합 처리 방식

<http://www.discover.com/issues/jul-04/features/anything-into-oil/>
<http://www.changingworldtech.com/>

공동체 해결 방안

<http://www.postcarbon.org>
<http://www.pathtofreedom.com>
<http://www.communitysolution.org/>

예, 자동차는 중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뭔가 시작해야 할 겁니다. 길거리에서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지요. “배기가스는 이제 그만! 새로운 것을 발명하라!” 하고요.

-장하이 무상사

황금시대를 위한 신환경 교통수단 발명하다

리처드 스튜어트 사형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스승님의 말씀에 영감을 얻다

환경 보호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스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나는 2005년 1월 디젤 엔진을 개조해 깨끗하거나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회사의 구호는 “액체 태양 에너지(이를테면 식물성 기름 연료)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것은 스승님이 지난 1999년 8월 4일 미국 뉴욕에서 ‘환경 보호에 힘써 지구 구하라’는 내용으로 하셨던 말씀이었다. (뉴스잡지 154호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참고) 이 말씀 도중 스승님은 어떤 동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셨다.

질문: 우리가 황금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스승님: 예!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질문: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좀더 많은 해결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배기가스는 정말 싫거든요.

스승님: 맞아요. 끔찍하지요! 나도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내뿜는 걸 보거나 그 매연을 들이마시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식물성 연료로 움직이는 저자의 스테이션 왜건. 차 뒷 유리엔 '식물성 기름으로 움직임'이라고 써 있다.



이어서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예, 자동차는 좋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길거리에도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지요, ‘배기가스는 이제 그만! 새로운 것을 발명하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셨다. “우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십시오. 최소한 물질적인 지식이라도요.”

연구 기간과 디젤 박사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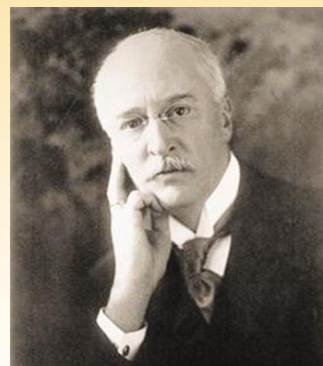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NBC 방송의 뉴스 보도를 통해 한 여성이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WVO)으로만 움직이는 디젤 엔진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대체 연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곧 현재의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할 만한 연료 가운데 신선하거나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이 이른바 ‘인위적인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물성 기름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지도 않고 화석 연료와는 달리 유황도 배출하지 않으며 아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입자상물질(매연)을 방출하는 양도 극히 적다.

식물성 기름이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식물성 기름으로 작동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가 모두 광합성 작용(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식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식물은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되는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해낸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영구적 탄소 순환’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인위적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런 연료들은 지구 표면에 수천 년 간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잉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대기로 진입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나치게 많아 식물의 광합성 작용만으로는 다시 흡수될 수 없다.

나는 또 디젤 엔진을 발명한 루돌프 디젤 박사(Dr. Rudolf Diesel)가 1890년부터 1913년 사망하기 전까지 땅콩기름과 기타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고 심지어 1898년 파리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땅콩기름으로 작동하는 디젤 엔진을 선보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디젤 박사는 “디젤 엔진은 식물성 기름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이 방식을 채용하는 국가는 자국의 농업 발전에 막대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오늘(1912년을 가리킴)은 디젤 엔진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기름이 석유만큼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디젤 엔진을 발명하고 식물성 연료 사용을 지지한 루돌프 디젤 박사.

이 환상적인 정보는 나의 관심을 더욱 부추겼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가솔린 자동차를 처분하고 디젤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식물성 기름으로만 가동되도록 차를 개조하기로 했다. 한 기술자 친구가 내 도움을 조금 받아 조립식 변환 세트를 가지고 1984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스테이션 왜건을 개조해 주었다. 그리고 2004년 12월부터 LA 센터의 주방과 현지 음식점에서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을 수거해 거른 다음 차의 기름 탱크에 붓고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WVO로 움직이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날, 식물성 기름이 타면서 배출되는 깨끗한 배기가스 냄새는 마치 그 기름을 가져 온 채식 식당의 튀긴 두부 냄새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석유 산업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배기가스는 이제 그만! 새로운 것을 발명하라!”

스승님의 축복으로 친환경 사업을 시작하다

첫 번째 식물성 연료 차량을 개조한 다음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일을 잠시 쉬기로 하고 식물성 기름 엔진 개조를 홍보하는 데 전적으로 매달렸다. 먼저 현지 대학과 건강 관련 사업체, 환경 단체 측에 이 식물성 원료와 그 생태적 이점과 건강에 대한 이로움에 대해 강연을 들어볼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녹색당, 지구 구조대(EarthSave International)와 여러 단체 및 대학, 그리고 LA 카운티 공공사업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강연들은 수많은 판매 계약으로 이어졌지만 나 자신의 공학적인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스승님께 이런 엔진을 개조할 수 있는 정비소를 찾아달라고 기도했다.

얼마 후 내가 캘리포니아 헌팅턴에서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 가서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을 수거하고 있는데,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한 남자가 내 차 유리창에 붙은 ‘식물성 기름으로 움직임’이란

스티커를 보고 내 차에 대해 물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가 자기 기술자를 소개해 줬는데, 그 기술자는 이 식물성 기름 엔진 개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지 공급상에게서 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쉽게 찾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조 작업을 맡은 정비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용접이나 기기 공장을 발견해 그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차고에 나 자신과 고객들에게 공급할 깨끗한 WVO를 위해 쓰다 남은 식물성 기름을 여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내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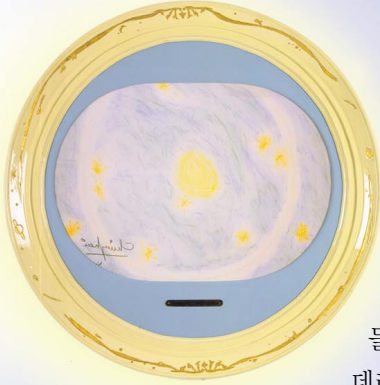
결론

이 모든 절묘한 안배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관음법문을 심어 낸 수행한 나는 이미 스승님의 도움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차고에 있던 우리 회사의 여과 설비는 이제 근처 상업 구역에 있는 더 넓은 장소로 확장, 이전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식물성 기름 연료 여과 및 엔진 개조 사업을 보면서 나는 스승님의 힘이 이 사업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스승님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봉사하고 지구의 생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축복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황금시대를 맞아 우리 지구의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되길 희망한다. ♥

디젤 엔진용 식물성 기름 연료, WV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WVO 차량 개조 과정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diesel2veg.com
www.greasecar.com
<http://journeytoforever.org/biodieselsvo.html>



평온한 밤

포모사 시후 센터 장주 (원문 중국어)

다음은 1992년 아시아 8개국 순회 강연 당시 일어난 일들이다. 스승님은 일본 도쿄 강연을 마치고 나서 출가제자만을 데리고 교외의 작은 나무 방갈로에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하셨다. 당시 산의 기온은 섭씨 3도가 안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스승님은 우리를 데리고 두껍게 쌓인 반짝이는 눈을 밟으며 산책을 하셨는데 아주 즐거웠다! 계곡의 졸졸거리는 물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교향곡처럼 들려 왔다. 우리는 냇가에서 차갑지만 유쾌한 감로수를 맛본 다음, 앉을 곳을 찾아 칩낭을 깔고 대자연의 기쁨에 잠겨 명상을 했다. 평화로운 기운은 마치 지구를 방문한 우리를 감싸는 듯 했다. 스승님은 지구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이시기에 제자인 우리까지 스승님의 영광을 나눠 가질 수 있었다. 낮이었지만 청명한 하늘 높이 달이 걸려 있었다. 좀더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자애롭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떠올랐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스승님은 부엌에 가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맛있는 일본 쌀밥과 거부할 수 없는 ‘좋은 아내 두부(주)’ 때문에 모두들 여러 차례 그 음식들을 털어 먹었다. 이 신성하고 맛있는 성찬을 즐기는 동안 스승님은 평소에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내가 이 세계를 떠날 때면, 이 행성부터 가장 높은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들이 나를 맞이하고, 환호하고, 찬탄하며 찬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제시간에 하는 개인적인 대화였다. 우리는 당시 그저 스승님이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인간의 두뇌로는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황금시대가 되고서야 우리는 정말 스승님이 시방삼세 불보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오신 스승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늦게, 우리는 방갈로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다 달이 큰 달무리에 감싸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스승님과 제자들이 신성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인류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스승님은 10분 후 이 신기한 광경을 파스텔로 그려내셨다.

일본 방갈로에서 있었던 일은 평온함 그 자체였고, 진실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스승님의 큰 은혜를 나타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스승님, 당신을 통해 이 지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완벽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최고의 신께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이 글을 다 쓴 저녁 우연히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라는 스승님의 강연 CD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스승님과 제자들이 그날 일본의 평온한 밤에 보았던 달 풍경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다! ♥

주: 스승님의 ‘좋은 아내 두부’ 조리법은 『무상 주방(Supreme Kitchen)』 제1권에 들어 있다.



초창기 사제지간의 이야기

루안리위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분별 없는 마음

스승님께서 신디엔에 사셨던 초창기 시절, 한번은 주방을 맡고 있던 사형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스승님은 이런이런 음식을 안 좋아하세요.” 며칠 뒤에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스승님께 여쭙 보았다. “차이 사형이 스승님은 이런이런 음식을 싫어하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자 스승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밖에 있는 큰 하수구에 나를 내던져도 좋아요.”

스승님의 이 대답은 깨달은 성인의 본성에 대한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했다. “일체 법을 분별하지만 분별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에게는 오관(五官)이라는 것이 그저 이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성인은 일반인과는 달리 좋거나 싫은 감정에 깊이 빠지거나 그 감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스승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불경의 심오한 구절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데도 스승님의 행동은 불경에 서술된 깨달은 존재의 품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니 스승님을 “살아 있는 경전”이라고 찬탄하는 것도 전혀 과할 게 없다. ♥

환경보호의 선구자

아마 스승님은 위에서 말했던 집밖에 있는 하수구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새우들의 괴로운 절규를 알고 계셨나 보다. 어느 날 스승님은 갑자기 신디엔에 있는 동수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독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중생에게든 독을 준다면 나중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재를 가지고 조리기구를 닦기 시작했고, 일회용 식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어느 날은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너무나 많은 핵 폭발 실험을 해서 지구의 보호층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른 여러 행성의 부정적인 힘들이 이 구멍을 통해 지구를 관통해 들어와 인류가 치료하기 힘든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도박과 온갖 재난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전세계 대중 매체는 “지구 오존층에 큰 구멍이 생겼으며, 그곳으로 들어오는 방사선 때문에 해마다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나는 이 뉴스를 읽자마자 신디엔으로 달려와 스승님께 알렸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이 입증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보호층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스승님은 대답하셨다. “수행자들은 뉴스를 읽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스승님이 갖고 계신 환경 보호의 개념은 모두 내면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수행을 완전하게 성취하기만 하면 모르는 게 없어진다. ♥

모르는 게 없는 스승님

그 무렵, 남편에게 맞고 사는 한 사저가 신디엔에 와서 스승님께 고민을 토로했다. 한 쪽에 앉아있던 나는 그녀를 동정하며 말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네요! 제 남편은 제가 수행하는 걸 반대하긴 하지만 때리지는 않거든요.” 그러자 스승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당신은 그녀와 상황이 달라요. 당신 남편은 여행 가이드라서 나흘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겠지요.” 나는 너무나 놀랐다. ‘스승님은 어떻게 남편이 여행가이드인 걸 아시지? 심지어 남편이 나흘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스승님께서 신디엔에 머무르실 때 그와 비슷한 일화가 많았다. 스승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승님은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은 것이나, 아침 몇 시에 일어나 명상했는지, 학교에서 학생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런 일을 겪은 후, 나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해 스승님께 여쭙었다. “스승님! 도대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스승님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나한테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켜고 알고 싶지 않을 때는 꺼 둔답니다!”

불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생각을 알고 있다 (『금강경』 일체동관분 제18절).” 깨달은 성인은 만물과 하나이고 스승님 앞에서는 누구나 투명하게 된다. ♥



파키스탄

형제애로 하나된 세상

포모사 · 싱가포르 · 태국 구호 팀 연합 보도 (원문 영어, 중국어)

2005년 10월 8일 아침,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이 카슈미르와 파키스탄 지역을 강타해 엄청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낳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이 불행한 소식을 접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박애 정신으로 즉시 구호 팀을 조직했다. 포모사 동수들은 지진 발생 열 시간 만에 활동 준비를 마친 뒤 구호 작업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다. 싱가포르 동수들도 카슈미르로 향해 구호 활동을 전개했고 태국 동수들은 포모사 동수들이 구입한 텐트들을 태국에서 파키스탄까지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



스승님의 은총 속에 순조롭게 진행된 구호 활동

포모사의 구호 팀 동수들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비자가 아주 순조롭게 발급되는 등 스승님의 놀라운 축복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태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은 동수에게 랜딩 비자(landing visa)를 발급해 줬을 뿐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는 비행기 예정 시간표와 재난 지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게다가 파키스탄 항공사에 특별히 전화해 우리 구호 팀을 위해 탑승 예약을 해주기도 했다. 동수들은 즉시 포모사에 팩스로 정보를 보내 필요한 의료 기구와 의약품들을 신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동수들은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예정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재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구호물자를 구입하며 구호 활동 계획을 잡을 수 있었다.

우선 구호 팀은 UN 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재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재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97%가 두절되었으며 피해 지역에 들어가 먼저 충분한 음식과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구호 팀

은 차를 한 대 빌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자 현지 경찰이 우리에게 중형 밴을 구해주었다. 그 차는 원래 한국의 한 구호 팀이 빌려놓았던 것인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서 쓸 일이 없어진 참이었다. 운전기사인 소그한(Soghan) 씨가 무료로 운전해주겠다고 해서 결국 그 중형 밴은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포모사 구호 팀의 전용차량이 되었다. 그 지역 버스회사의 사장은 아쉬라프 카아(Ashraf Khah)라는 친절한 신사를 가이드로 소개해 주었고 작은 밴 한 대를 할인 가격으로 빌려 주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스승님은 필요한 모든 안배를 해주셨다.

구호 팀은 10월 12일, 해질 무렵 아보타바드(Abbottabad) 시에 도착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날마다 재해 지역을 방문해 사람들을 돌보고 있던 다섯 명의 의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재해지역의 실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산림국 직원과도 연락을 취했는데, 외딴 산간 지역에는 정부 구호 팀의 지원이 닿지 않은 데다가 날씨도 추워서 이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음식 같은 구호물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해 지역으로 가는 길이 복구되자 팀원들은 구호 팀을 두 개조로 나누어 1조는 10월 14일 아침, 피해가 심각한 파키스탄 영토인 아자드 카슈미르의 수도인 무자파라바드(Muzaffarabad) 시로 향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역 국군 병원을 방문했다. 2조는 위성통신 장치를 설치한 후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콩과 라면, 밀가루, 쌀, 분유, 식용유, 비스킷, 사탕, 담요, 여성용품, 생수 같은 일용 생필품들을 구입했다.

이어서 1조는 유엔 구호 팀에게 예약돼 있던 국군 병원 야영장에 천막을 쳤다. 전기, 물, 화장실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동수들은 야외에서도 살아남는 기술을 발휘해 캔버스 천으로 임시 구호기지를 세웠다. 10월 14일 오후, 2조는 구입한 물품을 국군 병원 야영장으로 옮겨와서 포장하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그날 저녁 함께 명상하면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재민들에게 전해져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재난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한편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도구로써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가이드인 아쉬라프 씨로부터 사상자 수가 엄청 나다는 얘기를 들은 동수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구조 및 구호 작업을 개시했고, 2조는 밤새 아보타바드로 돌아가 많은 양의 구호품을 구입했다. 운전기사인 소그한 씨가 그의 사촌 샤(Sha) 씨를 소개해 준 덕분에 우리는 그에게서 필요한 구호물자를 모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샤 씨는 우리 구호 팀과 생면부지인데도 자발적으로 친지와 친구들에게 우리 구호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보조인력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도 안 돼 40통이 넘는 구호물자를 구해 여섯 대의 대형 트럭에 실어 다음 날 아침 재해 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10월 15일, 구호 헬기가 끊임없이 도로가 두절된 산악 마을을 오르내리며 구호 팀이 준비한 의약품들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팀을 모살라(Mosalla) 시로 보내 담요를 사오게 했다. 그래서 10월 16일 새벽, 1조는 중형 밴 차량에 구호물품을 싣고 10킬로미터 떨어진 산촌으로 향했다. 지진 피해 지역에 들어서자 도처에 붕



괴된 가옥과 벽만 남아있는 참상이 보였다. 곧 부상을 입은 이재민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자 우리 구호 팀의 의사 동수들은 서둘러 그들의 상처를 돌보고 약품을 나누어주었다. 가는 도중 많은 이재민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들은



은 구호물품을 가슴에 꼭 안고선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감사를 표했다. 구호물품 속에는 스승님의 사진도 같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사진을 높이 들어 올리며 기뻐했다.

제2조는 샤 씨와 그의 친구, 친지들 및 15명의 일꾼들과 함께 10월 16일 저녁 무렵 트럭 여섯 대(40여 톤)에 구호물품을 싣고 지역 정부가 마련한 구호물품 수집소로 운송했다. 구호 팀은 물품을 수령하는 구호 담당 공무원들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그들에게 반드시 이재민들 손에 직접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공무원들도 도움이 가장 시급한 산간 지역민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경찰의 호위



하에 40여 톤의 구호물자와 의약품을 정부 구호

팀에게 내려 주었다. 일을 마치고 고개를 등자 밤하늘에 환한 보름달이 부드럽고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승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안배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동수들은 샤 씨를 비롯해 많은 지역민들의 친절하고 선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샤 씨는 차량과 일꾼들을 구하도록 도와줬을 뿐 아니라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운송비용의 일부와 운전기사의 초과 수당을 손수 부담하고자 했다. 운전기사 소그

한 씨와 가이드 아쉬라프 씨도 마지막까지 구호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아쉬라프 씨는 돌아오는 길에 지난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동수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칭하이 무상사는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없다고 애기했다. 이에 그는 연락처를 알려 주며 우리가 이후에도 그에게 연락해 주길 희망했다.

10월 17일 구호 팀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을 주민 다섯 명이 찾아와서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그 중 한 무슬림 여인은 지진으로 집을 잃은 후 임시로 여관에 묵고 있었는데 우리 구호 팀이 자신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선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고 이에 따라 스승님을 알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연락처를 남기며 “저는 무슬림 여성이라서 평소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안의 강한 열망이 이곳까지 여러분을 만나러 올 용기를 주었어요.”라고 얘기했다. 이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녀의 영혼에 닿은 것임이 틀림없었다!

2005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구호 활동에 참여한 동수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의 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렸다. 신의 뜻에 따라 일하기만 한다면 만사가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

지진 이재민들에게 겨울을 지낼 텐트를 기증하다

포모사, 태국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 동수들은 구호 팀 2조로부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파키스탄과 카슈미르의 지진 이재민들에게 겨울을 지낼 텐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즉시 텐트를 구입해 포장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덕분에 포모사 외교부와 태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큰 도움을 주었고, 차이나 항공과 파키스탄 항공도 무료로 구호물품을 재해 지역까지 운송해주었다.

동수들은 포모사에 있는 두 군데 회사에서 1,802개의 텐트를 구입했는데, 그 중 한 회사의 직원들은 주말 휴가도 포기하고 화물 포장을 도왔다. 동수들은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200개의 목도리와 250개의 모자도 함께 준비했다.

10월 25일, 구호물품이 태국 방콕에 도착한 뒤 태국 동수들은 파키스탄 대사관을 방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 공식 기증행사에 참석했다. 파

키스탄 국민을 대신해 전달한 물품들을 수령한 모하멧 나피스 자카리아(Mohammad Nafees Zakaria) 부영사는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 협회의 기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





사랑과 지원으로 지진 이재민들의 가슴을 위안하다

싱가포르 구호 팀(원문 영어)

포모사의 구호 팀이 파키스탄으로 떠난 후, 싱가포르 동수들은 한 독일 동수와 파키스탄 출신 동수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싱가포르 구호 팀은 10월 15일 밤, 지진이 미치지 않은 가까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다음 날은 아자드 카슈미르의 재난 상황을 조사하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파악했다. 구호 팀은 먼저 북부 지역을 조사한 뒤 남부의 피해지역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박(Bagh)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설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마을들은 광활한 산악지대에 흩어져있었기 때문에, 구호 팀은 캔버스 천과 밧줄로 천막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다른 구호단체와 민간인들이 이재민과 친지들을 위해서 텐트와 천막 천을 모두 사버려서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 주변에서는 그 재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구호 팀은 재단이 안 된 170장의 천막 천과 캔버스 천을 구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동수들은 라호르(Lahore) 근교의 공장 두 군데에 주문해 밧줄로 튼튼히 고정할 수 있도록 토치리와 열면에 홀더를 넣고 천 끝을 마감처리 한 3.7m × 3m 크기의 천막 천 7천여 장을 제작하게 했다.

천막 천을 구입하고 가공하는 동안 구호 팀은 고산 지대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 재난 상황을 조사하고 물자 분배 계획을 짰다. 이어서 주문한 천막이 다 만들어지자 박에 있는 구호 팀 본부로 옮겨와서 이재민들에게 나눠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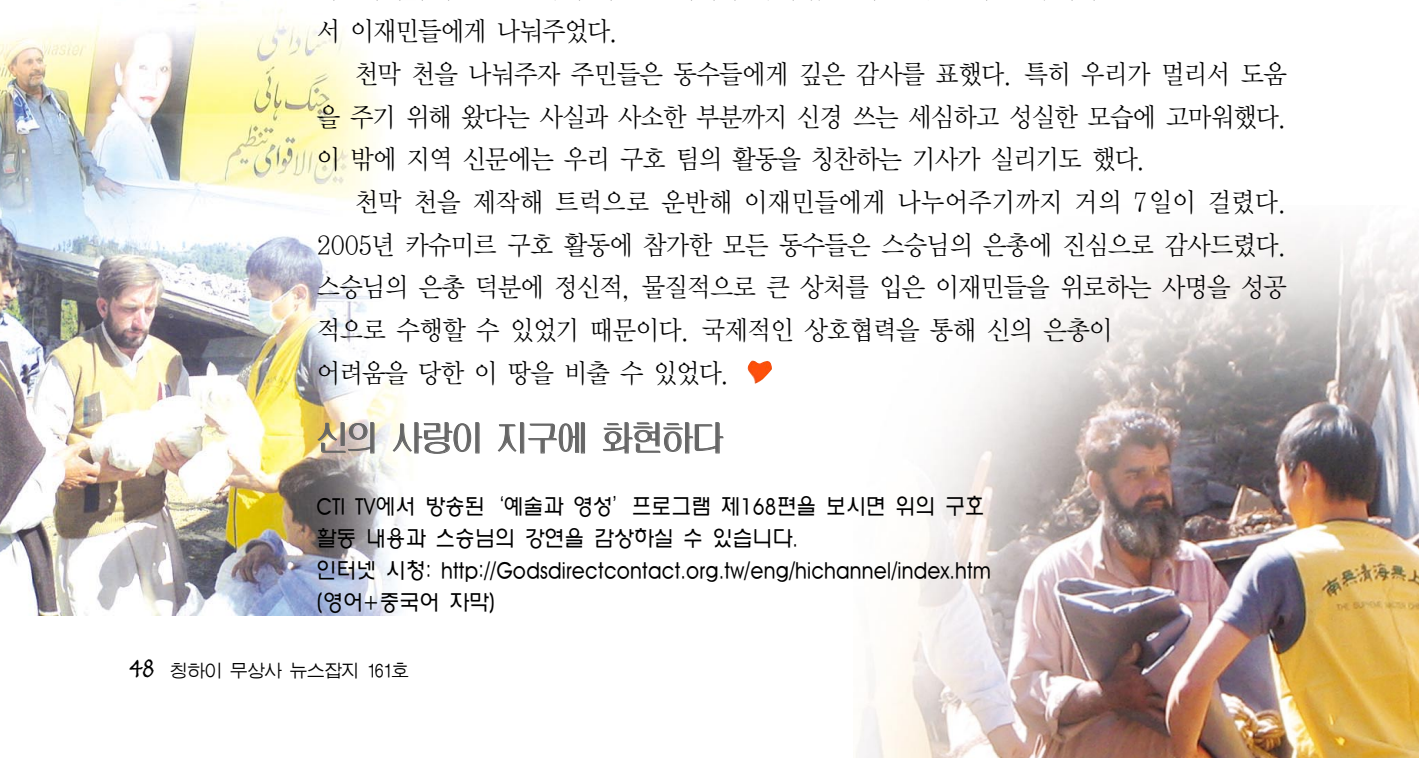
천막 천을 나눠주자 주민들은 동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리가 멀리서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세심하고 성실한 모습에 고마워했다. 이 밖에 지역 신문에는 우리 구호 팀의 활동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천막 천을 제작해 트럭으로 운반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주기까지 거의 7일이 걸렸다. 2005년 카슈미르 구호 활동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상호협력력을 통해 신의 은총이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을 비출 수 있었다. ♥

신의 사랑이 지구에 화현하다

CTI TV에서 방송된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제168편을 보시면 위의 구호 활동 내용과 스승님의 강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청: <http://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중국어 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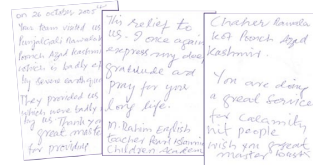
감사 편지 (원문 영어)

2005년 10월 26일

칭하이 무상사 귀하

저희 아자드 카슈미르 푸운치 지역은 지난 2005년 10월 8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귀 협회의 구호 팀은 나왈라코트(Nawalakot) 펀잘갈리(Punjalgali)까지 찾아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던 텐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신 위대한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님께선 재앙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위대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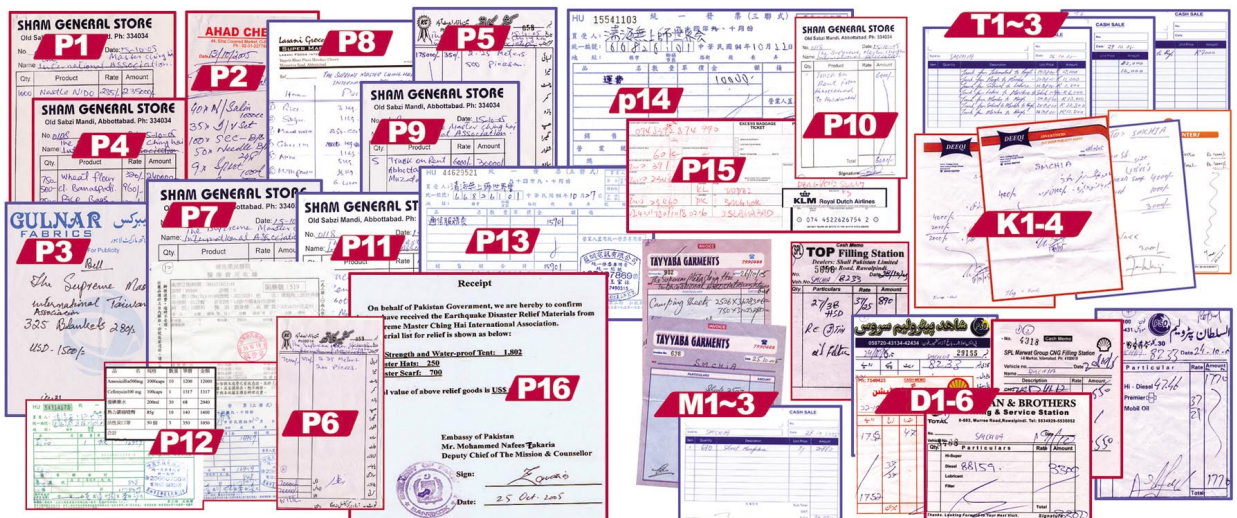
아자드 카슈미르 차헤르 나왈라코트 푸운치
필 이슬라믹 어린이 학교 영어 교사 M. 라힘 드림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파키스탄 루피)

구호물품	금 액	영수증
식품(생수, 분유, 밀가루, 식용유, 쌀, 국수, 설탕)	1,605,900	P1, P4, P7, P8
담요	333,470	P3, P5, P6
의약품	113,282	P2, P12
텐트, 목도리, 방한모자	3,729,921	P16
천막 천, 캔버스 천, 바늘	5,498,880	S1-9
천막 제작비	233,523	M1-3
인세비	12,400	K1-4
트럭 임대료 및 운송비	209,822	P9, P10, P11, P14, D1-6, T1-3
통신비용 및 잡비	279,420	P13, P15
총 계	12,016,618 (미화 약 202,428.60달러)	



미국 텍사스

재난은 덧없지만 스승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로버트 위안/ 텍사스 휴스턴 (원문 영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지방을 강타한 지 2주만에, 다시 허리케인 리타가 플로리다 해안에서 형성돼 시속 257km의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허리케인 리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한 이 지역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이 되었다. 그러나 신의 은총으로 다행히도 휴스턴 시는 리타의 피해에서 벗어났고, 리타가 2005년 9월 24일 새벽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경계 지역에 상륙했을 때는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

휴스턴 지역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휴스턴 동수들은 8월 27일, '앞으로는 항상' 재난 구호 활동에 착수하라는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칭하이 무상사 구호 팀을 조직하고 휴스턴을 본부로 삼았다. 허리케인이 닥치기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이미 모든 식료품과 생수, 연료들을 사재기했기 때문에 동수들은 구호작업이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이에 휴스턴 구호 팀은 텍사스 주와 다른 주의 센터에 본부로 식료품과 식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다른 주의 많은 동수들이 자원봉사 팀을 조직했고 허리케인이 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신속하게 구호물자를 조달해 주기로 약속했다. 동수들은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겨우 구호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오클라호마, 달라스, 오스틴 등지에서도 물자가 많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수들은 허리케인이 닥치기 1시간 전에 휴스턴에 도착했다. 동수들이 본부에 들어가자마자 비바람이 거세

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9월 24일, 피해 지역의 바람이 점차 누그러들며 시속 97km로 약화되자 동수들은 구호물자를 가득 싣고 161km 떨어진 텍사스 주의 보몬트(Beaumont)와 포트 아

서(Port Arthur) 등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향했다.

구호 팀이 보몬트에 도착하자 폭우와 바람은 잔잔해지기 시작했지만, 도로는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다. 약탈을 막고 여기저기 길가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과 끊어진 전선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막아 놓은 것이다. 구호 팀은 바리케이드 쪽으로 다가가 음식과 물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당했다. 그러나 구호 팀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번 고속도로 출구로 향하면서 스승님께 자신들의 사명이 완수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선 구호 팀을 통과시켜 주었다. 동수들은 쓰레기더미와 끊어진 전선들, 쓰러진 나무들 틈을 조심스럽게 운전해 통과했다.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당국의 지



시에 따라 대피한 상태였지만, 구호 팀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살살이 뒤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얼마 후 동수들은 한 주민을 만났다. 그에게 구호물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자, 그는 “그럼요. 상점 문이 모두 닫혀서 나도 이들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 걸요.”라고 말하며 자청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동수들을 인도했다. 스승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동수들은 서로 인접한 지역을 계속 옮겨다니며 아파트와 호텔 등지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었다. 주민들은 동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동수들은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신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도리어 자신들이 고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동안 동수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느낌을 많이 경험했다. 마치 그곳에는 이재민도, 구조자도 없이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늦은 밤이 될 무렵 구호 팀은 신이 보내신 그 주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곳을 떠났다.

9월 25일 일요일에는 보다 큰 규모의 구호 팀이 꾸려졌다. 대형 임대 트럭 세 대와 세 대의 밴에 구호물자를 실은 구호 팀은 다시 보몬트로 출발해 또 다른 기적의 여정을 시작했다. 동수들은 포트 아서, 재스퍼(Jasper), 룬버튼(Lunberton), 빈톤(Vinton), 그리고 기타 허리케인 리타 피해 지역들로 나뉘어 구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리는 보몬트에 거의 도착해서 10번 주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우고 간단한 회의를 했다. 그런데 한 사형이 지역의 상황 정보를 얻기 위해 근처에 있는 엘레간테 호텔(Elegante Hotel)에 갔다 오면서 또 다른 ‘신의 사자(使者)’를 데려왔다. 그는 엘레간테 호텔에는 지난 카트리나 이재민들로 꽉 차 있는데 이번에 또 허리케인 리타로 피해를 입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의 도움으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무사히 통과했다. 우리 구호 차량이 호텔에 들어서자 잊혀졌던 카트리나 이재민들이 환호와 박수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어서 어디선가 갑자기 CBS, ABC, NPR, BBC, 폭스 사 같은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나타나 이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식품을 나눠주는 동수들을 취재했다. 이재민들은 빵이나 젤리, 땅콩버터와 같은 기초 음식들을 진수성찬이라도 되는 양 받자마자 앉은자리에서 맛있게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 딱딱한 라면조차 그대로 어찌나 맛있게



먹든지 보는 동수들까지 군침이 돌 정도였다.

구호 팀이 보몬트 구호 활동을 마칠 무렵 포트 아서에서 홀리데이 인을 운영하는 한 노부인이 동수들을 보다 많은 포트 아서 이재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경찰의 봉쇄망도 통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뉴스 매체에서 포트 아서가 아직도 물에 잠겨 있어 접근을 금한다고 경고했던 터라 우리는 당초 포트 아서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방위군과 구조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수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신의 안배에 따라야 한



다는 것을 알았다! 이 새로운 사자의 도움으로 동수들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홀리데이 인에 도착해 몇몇 경관들과 인사를 나눈 동수들은 그들에게 이재민을 도울 방법을 정중히 문의했다. 그러자 한 경관이 허리케인 리타가 닥치기 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구호팀 대표들은 오스카 오티즈(Oscar Ortiz) 시장과 경찰서장을 소개 받았다. 알고 보니 오티즈 시장 또한 사택이 허리케인 리타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이재민이나 다름없었다. 시장과 서장은 구호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한 동수가 “저희에게 경찰 바리케이드를 통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써주신다면 구호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오티즈 시장은 그 자리에서 자신과 경찰 서장이 직접 서명한 긴급 구조 통행증을 만들어 주었다. 얼마 후 동수들이 거리에 구호물자를 내리고 있을 때 서장이 두 명의 경관을 통해 두 번째 통행증을 보내 왔다.

보몬트로 돌아가 구호 작업을 계속하던 동수들은 또 다른 안내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구호팀을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 아파트로 인도했다.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폭염 속에 물과 전기, 음식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 ‘안내자’는 동수들의 성심에 감동한 나머지 구호 활동에 동참해 너무 연로하거나 몸이 쇠약해 로비로 음식물을 받으러 내려올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여러 층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식물을 날라다 주었다. 일부 이재민들이 빵을 요청했는데, 마침 빵이 이미 떨어지고 없어서 구호팀은 난감하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사형이 다행히 휘발유 통들 사이에서 못 보던 빵 한 상자를 발견했다! 노인들은 너무나 좋아하며 동수들을 끌어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모습만으로도 작업팀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여겼다. 구호물자를 다 나눠준 뒤 동수들은 그 안내자를 그의 집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변에 내려주었다. 그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구호 차량에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허리케인이 닥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방위군이 투입됐지만, 구호팀은 구호 작업을 계속해 전날 밤 휴스턴에서 새로 구입한 구호물자를 나눠주었다. 마지막으로 물자를 나눠주고 난 후 동수들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경찰서로 돌아와 남은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호 임무를 마무리지었다. ♥



미국 플로리다

이재민과 구호팀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함께 나누기’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허리케인 리타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 허리케인 월마가 2005년 10월 24일 아침, 플로리다 남서 해안에 도착해 최고 풍속 200km/h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로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허리케인이 상륙한 후, 케이프코랄과 포트 마이어스(Ft. Myers),

네이플스(Naples), 올랜도에서 온 열한 명의 동수들은 재빨리 구호팀을 조직해 물과 얼음, 곡물, 빵, 잼, 땅콩버터, 영양식품, 기저귀, 유아용 분유 같은 필수품들을 구입했다. 동수들은 물

자들을 트럭 한 대와 큰 밴 한 대, 소형 화물차 몇 대에 싣고 우선 피해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이자 수천 명의 빈민층들이 살고 있는 이모칼레(Immokalee) 지역의 이동주택 공원 두 곳에서 물자를 나누어 주었다. 스승님의 영적인 지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이재민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구호물자를 기쁘게 받았다.

둘째 날에는 새로 구호물자를 차에 가득 실은 후, 플로리다 중남부의 오키초비(Okeechobee) 호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피해 지역인 클루이스톤(Clewiston)으로 향했다. 지역 주민들과 법집행관들에게서 들은 정보를 통해 구호 팀은 27번 주 도로변 이동주택 단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특히 물과 얼음 같은 구호물자가 절실한 상태였다. 동수들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허리케인 피해 지역, 트로피컬 아일랜드 파크(Tropical Island Park)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차를 몰고 지나가던 한 여자가 구호 팀의 앞을 막으며 급박하게 소리쳤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음식 좀 얻도록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동수들은 재빨리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뒤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동수들은 트로피컬 아일랜드 파크에 들어서기 전, 도로변에 잠시 차를 멈추어서 황폐화된 마

을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공원에 거주하는 이동주택의 주민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서 구호물자를 나누어주었다. 한 주민은 동수들이 스승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감동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와! 여러분은 여기에 온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호 팀은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뒤라서 서둘러 팜비치(Palm Beach)로 향했다. 그곳의 동수 두 명이 구호 팀에 합류해 함께 또 다른 이동주택 단지에서 물품을 나누어주었다. 동수들이 그 지역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가 달려왔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인 채 흥분된 목소리로 “오, 세상에!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천사임에 틀림없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하느님!” 하고 외치고는 한 사형을 끌어안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 다른 한 남자도 트로피컬 아일랜드 파크의 이재민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보다 절박하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주러 오길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예요.” 또 다른 여성은 처음에는 동수들의 도움을 사양했으나,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가 언제나 무료로 구호품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곧 마음을 바꾸었다. 구호 팀 차량은 계속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동주택 단지로 향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빠르게 나누어주었다.

팜비치 구호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수들은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한 수천 명의 농부들이 있는 지역에 차를 세웠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이곳 주민들은 어릴 것 없이 모두 인내심 있게 줄을 서서 구호품을 받아갔다. 이 일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서야 동수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늦었지만 활동에 참여한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짝이 없었다.

구호 활동을 마무리하던 사흘째 되던 날, 동수들은 많이 피곤했지만 더 많은 이재민들을 도우려는 결의와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구호 팀은 더 많은 물과 열음, 그리고 다른 구호물자를 트럭에 싣고 80번 주도로를 달려 오커초비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벨라 그레이드(Belle Glade)를 방문했다. 처음 도착한 마을은 수많은 집들이 허리케인으로 크게 파괴되거나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그곳 이재민들은 구호물자를 반갑게 받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나타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성은 동수들에게 약 반 마일 떨어진 이동주택 지역에 가서 가보라고 알려주었다. “거기로 가 보세요.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에 동수들은 감동해 서둘러 출발했다. 그녀가 말한 피해 지역으로 들어섰을 때 광범위하게 초토화된 모습은 그녀의 말을 실감나게 했다. 그곳 주민들은 구호 팀을 보자마자 줄을 길게 서서 스승님의 선물을 받았다. 줄이 점점 더 길어지자 동수들은 더욱더 열심히 구호물자를 나누어줄 준비를 했다. 동수들은 한 노인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곤 그에게 사정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우리 이동주택의 지붕이 날아갔어요.”라고 말하며 다른 지역 이재민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건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또 지금까지 중 최고예요!” 한 사형이 또 다른 노인을 위해 묵직한 구호물자를 집까지 가져다주자 그 노인은 동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은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이예요!”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동안 경찰 헬리콥터가 몇 분 동안 이 지역 상공을 빙빙 돌더니 갑자기 경찰차 세 대가 나타나 거주지 입구 도로를 막았다. 한 경찰이 구호 팀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서 주민들이 아주 협조적이고 질서 있다고 하자 경찰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두 대는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갔고, 경찰 한 사람만 남아 구호 활동을 순찰했다. 이 날 구호 활동이 끝날 무렵 한 동수가 그 경찰에게 도와주러 와서 고맙다고 하자 그 경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주민들을 도와주러 오셨으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다음에 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곳 경찰 부서에 전화 하면 이재민들이 있는 곳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번 허리케인 율마 구호 활동을 통해 보았을 때 마지막 작업이 동수들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다. 어두운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스승님의 사랑과 물질적 도움을 받은 이재민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해졌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동수들은 이처럼 동포들에게 도움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사랑하는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



미국 캘리포니아

중추절의 정신을 발휘해 노인들에게 스승님의 보살핌을 전하다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9월 18일,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 속에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로스가토스 오크 요양원(Los Gatos Oaks Convalescent Hospital)의 아름다운 노인들 및 직원들과 함께 중추절을 즐겁게 보냈다.

산호세의 아름다운 한 외곽에 자리한 이 병원은 매력적이고 관리가 잘 된 요양원으로 캐시 호프(Cathie Hauf) 간호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노인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2/3는 어울락계이고 나머지는 백인이다.

동수들은 방문에 앞서 친절한 직원 신디 레(Cindy Le) 씨로부터 쌀쌀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거주민들에게는 담요가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월병과 과자, 망고,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양털 담요도 함께 샀다.

중추절은 원래 아시아인의 명절이지만, 이 날은 모든 거주민들이 함께 이 행사를 경축했다. 사실, 한 백인 여성은 중추절의 유래에 대한 동수의 설명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으며 뉴스잡지 159호 표지에 있는 스승님의 사진을 존경을 담아 응시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또 생기 넘치는 96세의 어울락 할머니는 동수들에게 매료된 듯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찬미하며 말했다. “난 음식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죠.” 그러자 한 직원이 이 할머니는 1920년대 초 ‘미스 몽카이(어울락 북부의 한 지역 이름)’로 불렸다고 얘기해줬다. 이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수들은 인류는 천성적으로 진·선·미에 매료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날 담당 간호사인 이블린 미나(Evelyn Mina) 씨는 웃는 얼굴로 동수들을 대접했다. 사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곳의 노인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지요.”라고 열정적인 직원인 다오(Dao) 씨가 말했다. 또 다른 여직원인 미엔(Mien) 씨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담긴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는 이곳 노인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대합니다. 그분들이 전생에 아마 우리 부모님이었

을지 누가 알겠어요?”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동수들의 눈에는 요양원 직원들이 날마다 신의 자녀를 돌보는 성인의 역할을 맡은 조용한 영웅들처럼 보였다. 이 밖에 많은 노인들이 토요일마다 스승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 스승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멋진 강연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했다.

로스가토스 오크 요양원 중추절 행사는 노인들과 직원, 동수들 모두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동수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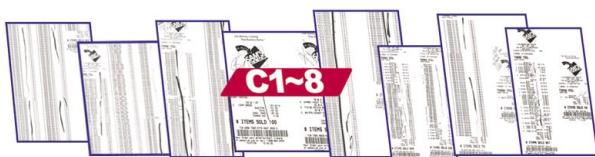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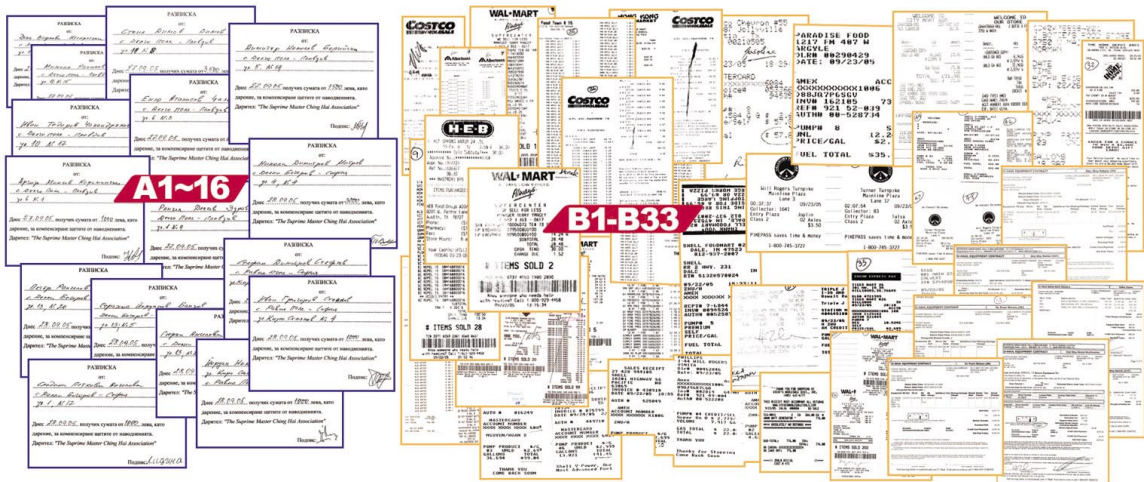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듯 느꼈다. 스승님께서서는 실제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행동과 마음을 통해 소아(小我)에서 벗어나 의식을 좀더 확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

고 모든 중생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자기 가슴속에 내재한 은은한 달빛을 기억하도록 격려하신다. ♥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미국과 불가리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국가	재난활동	내 용	금 액	부록
불가리아	홍수	위로금	19,946.00	A1~A16
미국	허리케인 리타	식료품, 식수, 운송비, 연료비, 발전기, 손전등, 차량 임대료	11,112.50	B1~B33
	허리케인 윌마	식수, 식료품(빵, 땅콩버터, 시리얼, 쿠키, 스낵), 얼음, 유아용품(기저귀, 물 티슈, 분유), 잡화(지퍼백, 아이스크림)	14,149.59	C1~C8
총 계			미화 45,208.09달러	



불가리아

스승님의 자비가 불가리아 수재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2005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불가리아 서부 지방은 호우로 큰 홍수가 발생해 많은 농장과 가옥이 피해를 입고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다. 폭우로 댐과 강들이 범람해서 이 지역을 덮었고 건물이 붕괴됐으며 철도가 끊기고 많은 지역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홍수 소식을 듣자마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시후 본부는 헝가리 동수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로 가서 스승님의 지원금 2만 달러를 불가리아 동수들에게 전하도록 요청했다.

다음 날 불가리아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이 자동차로 피해가 큰 지역 네 곳을 방문했다. 이들 지역에서 동수들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과 참혹한 피해 실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많은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침대, 매트리스, 난방기구, 조리기기 등 많은 가정용품이 물에 흠뻑 젖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방 정부에서는 수재민 가족들에게 우선 물을 퍼낼 장비를 제공하고 약 35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수재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럽에서도 이 곳은 특히 겨울에 지독히도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구호 팀은 신속하게 재해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도움이 시급한 몇몇 위성 마을로 향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구호금을 봉투에 넣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누어주었다. 예상치도 않게 때맞춰 이런 도움을 받은 이재민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기쁨을 나타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의 사진에 키스를 하면서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 말을 잊지 못했다. 한 노부인은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을 받자마자 무너진 집을 봤을 때 느꼈던 고통이 바로 사라졌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불가리아 홍수 활동을 마친 동수들은 스승님께 다음과 같은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스승님, 비록 저희는 재난이 많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스승님의 제자가 되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번 활동에서 느끼고 배운 것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펼친 구호 활동이었지만, 활동 내내 스승님의 사랑과 지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보살핌과 축복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많은 의미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어울락

신성한 사랑이 어울락 태풍 이재민들을 고양시키다

북 어울락 구호 팀 (원문 어울락어)

2005년 9월 말, 두 개의 태풍이 북 어울락을 강타해 11개 지방에 홍수 피해를 낳았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라오카이(Lao Cai), 옌바이(Yen Bai), 남딘(Nam Dinh), 푸토(Phu Tho)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과 도로, 농장들이 파괴되었다.

태풍의 기세가 줄어들자 어울락 동수들과 미국과 호주의 동수들이 구호금을 보내왔다. 이에 어울락 동수들은 즉시 세 개의 구호 팀을 조직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지원금을 나누어주었다. 피해 지역으로 옮겨다니는 동안 홍수로 인해 도로와 다리가 침수되는 등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쳤으나 스승님의 사랑과 강력한 축복 덕분에 구호 팀은 재해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동수들은 이재민들의 얼굴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님이 주신 영혼의 보약과 구호품을 나눠주자마자 그 슬픔은 바로 기쁨으로 변했다. 사형사자들은 깊은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을 잃은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동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동수들은 태풍이 휩쓸고 간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에 대한 연

민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신의 사랑을 나눠주며 신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나누어준 스승님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들이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길 기도했다.

이번 2005년 북 어울락 태풍 구호 활동에 참가한 동수들은 수재민들에게 신의 무한한 자비를 전하는 동시에 무아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인도네시아

스승님이 발리 폭탄 희생자들을 지체 없이 도우시다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2005년 10월 1일 저녁, 발리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그 즉시 그

날 밤 있었던 철야 명상을 중단하고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세 개의 구호 팀을 결성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도착해 보니 많은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동수들은 자카르타 센터로 돌아가 명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곧바로 거의 모든 부상자들이 후송돼 있는 상라(Sanglah)의 지방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병원에 도착한 구호 팀은 곧장 헌혈 등록처로 갔다. 그러나 병원에는 이미 아시아계 혈액형의 혈액이 충분한 상태여서 헌혈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구호 팀이 의사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자 그 는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열다섯 명의 환자들에게 쓸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동수들이 한 약국에 가서 필요한 의약품을 사려고 했으나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동수들은 포기하기 직전, 다시 한 번 그 약국으로 향하면서 이번에는 오불을 외웠다. 그랬더니 스승님의 도움으로 약사는 묻지도 않고 의약품을 주었다.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병원에 전달한 다음 동수들은 발리 센터로 향해 명상을 계속했다. 세 시간 정도 지난 뒤 동수들은 다시 병원으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환자들이 이미 53명으로 늘어



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동수들이 의 약품을 기부한 덕분에 의약품은 충분 했다!

이번 폭탄 재난 구호 활동을 통해 발 리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이 얼마나 빠르게 구호 팀의 장애물을 처리하고 피 해자들을 도우시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전능한 도움이 없었 다면 구호 팀은 이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

포모사 타이베이

신의 사랑이 집 없는 친구들을 비추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9월 2일, 태풍 탈림이 포모사를 가로지르며 휩쓸고 지나 간 다음 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당초 계획대로 중추절을 맞아

타이베이 시내의 노숙자들을 세 차례 방문해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불우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다.

당일 아침, 사형사자들은 타이베이 시정부 사회국에서 운영하는 ‘중허 노숙자 보호소’를 방문했다. 이 시설의 천 쉬에청 소장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





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져온 75개의 선물 꾸러미를 보호소로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다. 동수들을 본 노숙자들은 기쁜 미소를 지었다. 몇몇 노인들은 스승님의 법상을 들고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해서 우리는 그 단순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 가운데 61세 된 잔위준 아저씨는 “저는 10년 전 버스 기사로 일할 때 주말마다 동수들을 시후 센터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라고 회상하면서 당시 주말마다 백 대에 가까운 관광 버스가 주차돼 있었고 시후 센터 안에는 화려한 건물은 없어도 동수들이 풀밭 위에 행복하게 앉아 있던 모습이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잔 아저씨는 당시 스승님을 뵈는 적도 있고 스승님의 강연을 즐겨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 경험을 떠올리며 “스승님은 거동이 우아하고 등려군(포모사의 유명 가수)만큼이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듣기 좋았지요.”라고 얘기했다. 잔 아저씨는 노숙자가 되기 전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덕 있는 삶을 원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퇴직 후 마비환자들을 위한 타이베이 ‘창세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한동안 일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동수들은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돌봄의 집’을 방문했다. 현 군대 막사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타이베이 현에 있는 29개 향과 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설립한 ‘자원봉사 협회’ 본부이기도 하다. 친절하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황메이잉 소장은 10년 동안 노숙자들이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황 소장은 “저는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통해 스승님을 알게 되었는데 스승님의 자비로움과 가르침에 탄복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동수



들에게 시설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돌봄의 집’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황 소장은 자원봉사 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었다. 한 마약 중독자의 아들은 10년 동안 거리를 전전하며 타이베이 기차역을 집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며칠 동안 그 청년을 설득한 끝에 그는 결국 ‘돌봄의 집’에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 환경보호 회사에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돌봄의 집’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노숙자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직업 기술도 가르치고 있다. 자금 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 황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런 것은 모두



많은 노숙자 친구들이 선물 꾸러미에서 스승님의 건본 책자와 뉴스잡지를 꺼내 주의 깊게 읽고 있다.





우리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시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신이 모든 사람을 보살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어려움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지요. 이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스승님의 큰 사랑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모든 직원들은 뜻을 같이하는 자원봉사자이다. 그들에게 돈은 없지만 신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풍족하다!

그날 저녁 동수들은 늙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카톨릭 단체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마음 수도회’가 운영하는 한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왕홍룬이라는 젊은 자원봉사자는 “이곳에 있는 노숙자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고 교육을 받은 뒤 점차 사회에 융화되어 갑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곳 거주자들의 웃음 띤 얼굴에서 환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동수들은 그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고 서로 악수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나누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서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사형사자들은 집 없는 친구들이 살아 있는 큰스승을 알게 될 인연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으며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2주 후인 9월 15일, 타이베이 자원봉사 협회 황메이잉 회장은 타이베이 현 내 29개 향과 시의 노숙자들을 대표해 중추절을 맞아 여러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총 548개의 선물 꾸러미를 나눠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측에 감사하는 조출하고도 엄숙한 행사를 주최했다. 그녀는 진심어린 연설에서 “여러 해 동안 저는 TV를 통해 진리를 나누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선행을 보아 왔지만, 이번 활동을 지켜보며 비로소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칭하이 스승님의 모범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동수들은 타이베이 반치아오 구의 노숙자들에게 점心和 저녁을 제공하는 ‘개신교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 노숙자들은 동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스스럼없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관심을 전하고 선물 꾸러미를 주자 그들은 이 의외의 선물에 기뻐하며 놀라워했다. 그날 오후 동수들은 산충

시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다통 공원과 신이 공원으로 향했다. 노숙자 친구들은 선물 꾸러미를 받고선 꾸러미에 든 뉴스잡지를 꺼내 주의 깊게 읽었으며 부근의 주민들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활동에 크게 감탄하면서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좀더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어서 9월 19일, 우리는 자원봉사 협회의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타이베이 현에 있는 많은 공원과 사찰, 정자 등지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들을 찾아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번 노숙자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이베이 현의 많은 노숙자들이 세상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승님의 자비로움과 동수들의 신실함에 감동받아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활동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신의 사랑과 복음을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





포모사 타이난

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중추절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9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는 여러 가지 중추절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전통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옌수이 치아오난 구가지를 방문한 데 이어 타이난 시 홍치아 장애인 보호 센터와 징종 3촌(村)을 방문해 그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 주었다.

9월 5일 저녁, 우리는 치아오난 구가지에서 ‘진정한 사랑이 중추절에 떠오르다’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곳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인 까닭에 동수들은 이 노인들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추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길 바라며 풍부한 내용의 공연을 정성들여 준비했다. 공연에는 노래, 춤, 악기 연주 외에 전통 희곡 형식으로 진행된 스승님의 『무자사』 낭송도 있었다. 노인들은 그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불렀으며 이에 세대 차이가 부지불식간에 줄어들었다. 그들은 이 곡을 들으며 젊은 시절의 달콤한 추억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8개 마을에서 3백 명이 넘는 노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었으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두 가지 춤 공연을 선보였다. 천밍전 타이난 현장 비서와 천롱스 타이난 사회복지국장, 예마오롱 난롱 과학기술 연구소장도 참석해 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가 끝난 뒤 타이난 센터는 이 귀빈들에게 스승님 책을 특별히 선물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 어머니 자원봉사자는 타이난 동수들이 즐겁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본 뒤에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좀더 깊이 알고 싶어했다. 동수들이 그녀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하자 그녀는 시후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했다. 게다가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음식을 보고 나서는 우리처럼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옌수이 치아오난 지역 사회 개발 협회의 린후오무 이사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스승님의 보살핌에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큰 사랑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맛있는 채식 음식과 멋진 공연까지 준비한 것을 보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타이난 동수들은 이어서 9월 14일 홍치아 장애인 보호 센터에서 중추절 맞이 2차 활동을 전개했다. 이곳은 3백 명이 넘는 중증 심신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 복지 기관이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어른과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중추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동수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한 편을 상영하고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했다. 몇몇 동수들은 광대로 분장해 재미를 더하기도 했다. 행사 중 천진무구한 많은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즐겁게 손뼉을 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소리내어 웃고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동수들이 이끄는 대로 보호 센터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냈고 몇몇 학생들은 스승님의 음악에 맞춰 손과 발을 움직이며 아주 즐거워했다! 십여 명이 넘는 원생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보호 센터의 선수후이 주임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원생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선물, 쌀, 생필품, 그리고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 동수들에게 감사했다. 선 주임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진행한 이번 활동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열정적이더군요. 프로그램도 너무 훌륭해서 학생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라고 감탄했다. 그녀는 동수들이 맛있는 채식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준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감사장을 전하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를 표하고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채식 월병을 동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9월 16일, 동수들은 2천 명이 살고 있는 포모사 최대의 퇴역 군인 마을인 징중 3촌을 방문했다.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중추절 전에 이런 사랑의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행사 당일 우리의 홍보 차량이 마을을 순회하며 행사 소식을 알렸고 지역 활동 센터의 주임도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모든 동수들은 열성적으로 일하면서 맛있는 채식 케이크를 만들고 퇴역 군인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모든 공연은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전통 악곡을 반주로 한 스승님의 『무자시』 노래는 노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음악 리듬에 맞춰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즐겁게 손뼉을 치며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

활동이 끝난 후 징중 3촌 자치회 리지엔핑 회장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중추절 사랑의 향연’에 감사하고 스승님에 대해 깊은 존경을 나타냈다. 행사가 끝난 뒤 동수들은 대중에 대한 그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답례로 스승님의 DVD



와 책을 증정했다.

이번 2005년 중추절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사랑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타이난 동수들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새 즐겁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 사심 없는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 일람표 표1과 2 합계: NT\$257,119 (미화 약 7,911.35달러)

표 1: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원금

(단위: 대만 달러 NT)

지역	2005년 7월		2005년 8월		2005년 9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타이베이	3	8,000	3	8,000	2	5,000	1
창화	—	—	1	3,000	1	3,000	2
지아이	2	8,000	1	3,000	1	3,000	3
가오슝	1	4,000	1	4,000	1	4,000	4
화롄	—	—	1	3,000	—	—	5
타이둥	1	4,000	2	9,000	2	9,000	6
펑후	1	3,000	1	3,000	—	—	7
월별 소계	8	\$27,000	10	\$33,000	7	\$2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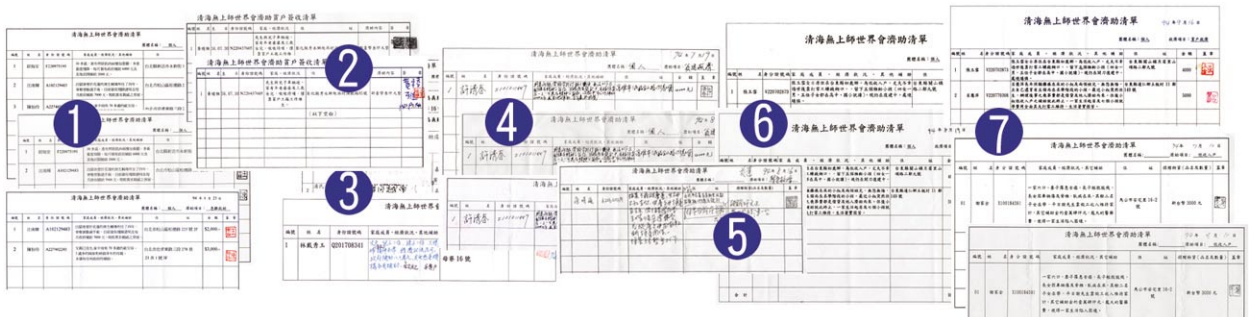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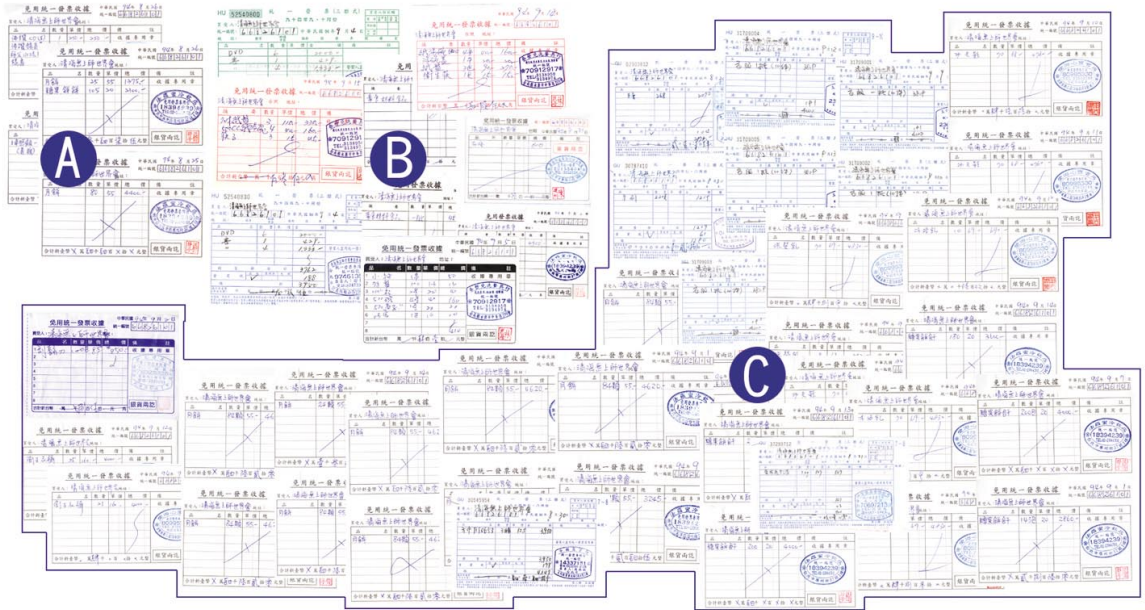


표 2: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달러 NT)

지역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화롄	2005. 7. 11.	법무부의 마약 갱생 활동을 지원,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 중독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지원)	0	
화롄	2005. 7. 13.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7. 27.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7. 28.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오웬	2005. 7. 29.	통탄 지체장애인 학교를 방문, 헌옷 52상자 기증(동수 자원 봉사)	0	
화롄	2005. 8. 1.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미아오리	2005. 8. 7.	시후 향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동수 자원 봉사)	0	
화롄	2005. 8. 8.	법무부 마약 갱생 활동을 지원,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 중독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지원)	0	
창화	2005. 8. 17.	창화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지원)	0	
타이난	2005. 8. 24.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베이	2005. 8. 27.	중추절을 맞아 타이베이 현 런아이 양로원 방문, 월병과 사탕, 과자, 영성 서적 기증	13,640	A
화롄	2005. 9. 5.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동수 자원 봉사)	0	
화롄	2005. 9. 12.	법무부 마약 갱생 활동을 지원,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 중독자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 지원)	0	
타이난	2005. 9. 16.	중추절 동안 타이난 현 옌수이의 노인·심신 장애인·퇴역 군인을 방문, 공연과 채식 음식 제공, 영적 가르침 나누기 활동	20,160	B
타이난	2005. 9. 19.	타이난 환경 보호국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 골든비치 청소 활동(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베이	2005. 9. 19.	중추절 동안 타이베이 현 내 모든 노숙자 쉼터와 모임 장소 방문, 옷과 신발, 목욕용품, 월병, 과자와 사탕 전달	139,319	C
타이난	2005. 9. 21.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9. 22.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미아오리	2005. 9. 25.	시후 향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동수 자원 봉사)	0	
총 계			NT\$ 173,119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3백여 명의 회원들이 미야오리 28번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타오웬 동수들이 불우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헌옷을 모아 분류, 포장한 다음 '룡탄 지체 장애인 학교'에 전달한다.

자연 재해가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다

치우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자연 재해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어 놓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와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다 가깝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1999년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가 오랜 숙적이었던 터키에 도움의 손길을 보냄에 따라 양국은 서로 간의 뿌리 깊은 차이를 제쳐두고 서로 협조해 이재민들을 도왔다. 그리고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이 초토화됐을 때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분리주의자들이 30년 동안의 분쟁을 멈추고 평화 조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근 2005년 10월 8일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자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해 구조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지진으로 이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 점령하고 있는 아자드 카슈미르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인도에서 제공한 식품과 약품, 텐트, 담요, 비닐 천 등 25톤의 구호 물자를 받아들였다. 10월 31일자 『범인도 통신(Pan India News)』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는 지진 구호 작업을 위해 수량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구호 물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관제선에 다섯 곳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누구든 인도 카슈미르 쪽에서 이쪽으로 구호물품을 가지러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또 다른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진 피해지역에 원조를 보낸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유대 국가와 이슬람 세계가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섰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 개선에 부응해 파키스탄 정부는 인류가 서로 대항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교와 인종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화는 계속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황금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 단체, 심지어 정부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십 년 전 융통성 없이 관료적이던 모습도 줄어들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분파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신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지구의 종교와 문화, 정부가 서로 손잡고 협력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명을 구하고 지구의 생태 환경을 새롭게 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카슈미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나는 비군사적인 방법에 찬성합니다.”라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지혜롭고 중도적인 말은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참고:

<http://archive.wn.com/2005/10/31/1400/panindianews/>
<http://www.gulf-news.com/Articles/WorldNF.asp?ArticleID=189544>
http://news.bbc.co.uk/2/hi/south_asia/4327008.stm
<http://www.cfr.org/publication/9006/indiapakistan.html#1>



위대한 성령과 그의 무지개 전사들

원원라이 라칸디 사저/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스승님은 2005년 헝가리 선 행사에서 당신이 이미 지구인의 의식을 고양시켜 우리 지구가 은하계의 고등 행성 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또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성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내 가슴에 그대로 와 닿았다. 이 밖에 스승님은 조만간 지구의 많은 성인들이 5세계, 즉 스승의 등급에 이를 것이라고도 하셨다.

이런 소식에 비춰 보면 19세기 아메리칸 인디안 크리 족의 ‘불의 눈’이란 여자의 예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불의 눈’은 예언하길, 언젠가 이 지구에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지만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정화 과정을 통해 좀더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시기에 ‘위대한 성령’ 즉, 신을 위해 일하는 성인 단체가 나타날 것이며, ‘무지개 전사’*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고대 부족의 전설·이야기·문화·의식·신화·풍습의 수호자’가 인류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지개 전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추종자들과 아주 흡사하다. 그들은 오랜 관례(관음법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종족들이 정의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위대한 성령을 알아보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일깨움으로써 지구와 인류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불의 눈’에 따르면 무지개 전사들은 인류에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고대의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해 ‘위대한 성령의 길’을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삶은 자연을 다시 소생시키고 지구의 모든 곳에서 화합을 도모할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천국의 메시지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재난 구호 활동과 자선 활동을 펼치는 관음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불의 눈’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도 했다.

“고대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무지개 전사들’은 위대한 성령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이 위대한 성령의 사랑은 아름다운 계곡 물처럼 굽이굽이 흘러내려 생명의 바다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혼자 있거나 여럿이 모일 때 다시 한 번 법희로 충만해지며 다시는 속 좁게 질투하지 않고 피부색·종족·종



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형제처럼 사랑하게 되어 마음속에서 샘솟는 행복을 느끼고 모든 인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해져 온정과 이해, 그리고 모든 인류와 대자연, 위대한 성령에 대한 존경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가슴, 영혼은 다시 가장 순수한 생각으로 가득 차 것이며 생명의 주인(즉, 위대한 성령)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기도와 한적한 생활을 통해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스승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듯하다. 스승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강연과 전자 매체, 그리고 가장 쉽게 신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인 전수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무지개 전사들’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령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했던 ‘불의 눈’의 말과 같다.

또한 스승님과 관음 가족은 항상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이재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신의 축복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해져 온정과 이해, 그리고 모든 인류와 대자연, 위대한 성령에 대한 존경으로 빛날 것이다.”라고 했던 ‘불의 눈’의 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불의 눈’의 다음 말은 이런 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구의 형제자매들이 돌볼 것이며, 이런 행위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환경 보호와 황금시대의 지구 생태계 개선, 그리고 동물 존중(비디오테이프 No.712 ‘동물의 신성한 지성’ 참고)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것 또한 ‘불의 눈’의 다음 예언과 연관된다. “강은 다시 깨끗하게 흐르고 숲은 무성하고 아름다워지며 동물과 새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식물과 동물의 권익도 다시 존중되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생활 방식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중생들에 대한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지구가 점차 회생하기 시작했으며 인류의 진정한 화합도 점차 커지고 있으니 200년 전 한 지혜로운 아메리칸 인디안 여성의 예언은 정말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

주 1: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SM 천의의 무지개 빛깔은 ‘무지개 전사’를 상징한 것이다.

무지개 전사들에 대한 예언 관련 사이트:

<http://www.getipm.com/personal/warrior/warrior.html>

주 2: 채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스승님의 강연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1) 뉴스잡지 38호 ‘세계를 종말에서 구하는 법’

2) 뉴스잡지 123호-환경보호 특집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를 살리자’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난: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ifu_liang91@hotmail.com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á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레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82/ uniselt@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l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87737/ edytan@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미국:
* 에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net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플로리다: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l@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팔/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8059/ DorothySakata@aol.com
* 알리노아: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캔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하이오: Mr. Gilbert Rivera/ 1-9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l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lem_l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cl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r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l.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y.dnet.net.id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 yadar@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i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lkpi@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대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333-9204~5/ chinghal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lda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67-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설택/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헌창/ 063-254-5824
광주/ 설택/ 062-525-7607
광주/ 조영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설택/ 032-867-5351/ l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812-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청옥/ 설택/ 054-673-1399
★ 라오스:
비엠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설택/ 853-532231/ mcdioli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클라룸푸르/ 설택/ 60-3-21453904/ klsmch@yahoo.com
클라룸푸르/ Mr. Phua Kai Ll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설택/ 604-2285853/ pgsmch@pd.laring.my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ksa@mptmail.net.mm
★ नेपाल:
카트만두/ 설택/ 977-1-4254-481/ chinghal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설택/ 977-61-28455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설택/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설택/ 65-6741-7001/ chinghal@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l@zeynet.com
★ 태국:
방콕/ 설택/ 662-674-2690/ bkkc68@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
차양마이/ Ms. Siriwan Supatrchamnlan/ 66-50-332136/ sirwanly@gmail.com
콘캔/ 설택/ 66-43-378112
송크라/ 설택/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설택/ 43-699-12272892/ Chinghal@gmx.at
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l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설택/ 42-02-6126-3031/ czech-center@e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r.Jussi Pohjolainen/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
헬싱키/ Mr.Hannu Hovilainen/ 358-40-734-3516/ helsinki-cent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설택/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퐁블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설택/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l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설택/ 49-30-3470-9262/ Grigoril.Guinzboung@gmx.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l@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설택/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설택/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설택/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라냐/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 호주: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에델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lide@hotmail.com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lchile@yahoo.es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달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8@hotmail.com
★ 스웨덴: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안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me@yahoo.com
★ 스위스: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linet.net.au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 영국: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l@matters19.freemove.co.uk	★ 뉴질랜드: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스토크온트랜드/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 스코틀랜드: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34/ hamnzcont@yahoo.co.nz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멜스/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오세아니아 ■	

* 전 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2005년 청하이데이에 스승님께 직접 이 기도문을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감미롭고 기쁜 목소리로 부르는 제 마음속의 노래를 스승님께서 들어주시리란 희망으로 글로 옮겨 봅니다. 스승님께서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문

원원라이 라칸디 사저/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오, 나의 창조주시여
당신이 제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당신의 찬란한 영광 속에 거듭나
저는 당신의 창공 속에 새 별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당신이 제 영혼에 신성한 의식을 주셨기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자 갈망합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저는 당신의 창공 속으로 휩쓸려 들어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천국에서 지구로
오랜 여정을 즐깁니다.
당신이 베풀어주신
그 은총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
태어나고 생명과 영혼을 갖게 되었을까요?
당신은 제게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주시어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진정한 사랑이시여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이 행운을 가졌을까요?
저는 어디에서나 당신을 느끼며
날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당신께서 절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일.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당신의 은총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움이 이어집니다.
생애 모든 계절을 겪으면서
내 사랑,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창공에 있는 진정한 제 신분을 일깨우십니다.
이 청하이데이를 맞아
이 사랑을 모든 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평화와 화합을 발견할 것이며
오직 당신의 은혜를 알아야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오, 창조주시여
이 광대한 창조계 그 어디에 저를 두시든
그 어떤 자리에 두시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 빛날 수만 있다면
저 하늘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오, 창조주시여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토록 당신의 신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새로 나온 책 프랑스어판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가 담긴 만화집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색감의 이 책에는 칭하이 무상사가 해주신 스무 편의 이야기들이 생동감 넘치는 재미있는 만화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호소력 있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이 이야기들은 그 속에 담긴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어린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작력, 그리고 개인적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준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기술사회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유머와 지혜가 듬뿍 담겨진 보물 같은 이 책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히 키워낼 것이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음향을 갖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되어 있다. 온라인 감상 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illustrate/index.htm> (영어-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illustrate/index.htm> (영어-미국)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602 <영어+중국어 자막>

어린이의 마음이 신이다

1997. 9. 13/ 12. 14. 미국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이 진정한 신의 본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명상하는 동안 삼매에 들면 종종 어린이나 천사, 신과 같이 순진한 상태가 되어 우리 본성의 순수한 기쁨을 경험한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마음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창조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MP3-CG03 <중국어>

1. 책을 읽으면 받게 되는 영향

1988. 10. 25. 포모사 타이베이 단체명상

2. 명상의 이로움

1988. 10. 25. 포모사 타이베이 단체명상

3. 수행 진보의 비밀

1988. 10. 29.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4. 천도와 해탈은 다르다

1988. 11. 2. 포모사 핑둥 단체명상

5. 깨달은 스승의 힘은 무한하다

1988. 11. 3.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6. 우리의 본래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1988. 11. 4. 포모사 화롄 단체명상

7. 부처는 어떻게 육도(六道)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1988. 11. 4. 포모사 화롄 단체명상

8. 갈망하는 마음

1988. 11. 6.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9. 수행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

1988. 11. 1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10. 왜 신통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가

1988. 11. 1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11. 진정한 신통력이란 무엇인가?

1988. 11. 1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진선미로 빛나는 제11대 천상의 보석



완전한 자: 주로 18K 금과 자수정으로 이루어진 이 컬렉션은 목걸이, 반지, 귀걸이, 넥타이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각형 모양에 아로새겨진 빛나는 자수정은 반짝이는 황금과 더불어 우리 내면의 완벽한 진선미의 품성을 상징한다. 스승님은 “우리는 영성과 언행, 모든 면에서 진선미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래야만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고 이 물질적인 육신의 차원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파도를 넘어서야 고요한 대양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파도나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완전한 자’ 시리즈는 스승님이 설명하신 완전한 존재가 되 려면 끊임없이 내면의 진아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디자이너: 청하이 무상사



은거자: 18K 금과 녹옥, 붉은 산 호로 제작된 이 컬렉션은 목걸이, 반지 두 개, 귀걸이 두 쌍, 넥타이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잘 익은 붉은 과일은 우 아하게 생긴 초록 잎과 조화를 이루 어 은은한 장밋빛으로 빛난다. 섬세 하고 정교한 장인의 솜씨로 만 들어 진 과일과 잎사귀는 한 치의 틈도 없 이 이어져 신성하고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치 은거자가 수년 간 말 없이 수행한 끝에 수행의 결실을 거두 는 듯하다.

